INVITATION TO THE ARTS

JULY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7 vol.295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Cover Story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세계의 공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

축제속으로 고고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제4회 BNK 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BNK금융그룹이 **전액 후원**하여 국내외 유명교수진과 함께 **5박6일간의 음악캠프**를 마치고
모두가 하나되는 **수료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젊은 예술인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30일(토)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지휘

관악지휘 이정생

현악지휘 다니엘S김

예술총감독

오 충 근

협연

플루트 최정윤

소프라노 정혜욱

입장권 **전석초대** (초대권 소지자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좌석 배정)

초대권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무료배부

프로그램

- 바르톡 /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작품113, 제1악장
  B. Bartok / Divertimento for String Orchestra Sz.113 I. Allegro non troppo
-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작품313, 제1악장
  W. A. Mozart /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ra Nr.1 in G Major, KV 313 I. Allegro maestoso
- 모차르트 / 콘서트 아리아 '엑슐타테 유빌라테' KV.165 I. 아리아, IV.알렐루야
  W. A. Mozart / Concert Aria 'Exsultate, Jubilate' KV.165 I.Aria, IV.Alleluja
- 리드 / 아르메니안 댄스
  A. Reed / Armenian Dances, Part 1
- 림스키-코르사코프 /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35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Symphonic Suite Op.35

교 수 진

예술총감독 오충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예술감독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관악지도교수 이정생
서울대학교, 미국 맨하탄 음대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바이올린 김영목
경희대학교, 비인시립음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 졸업
경희대 음대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바이올린 윤수영
캘리포니아 주립음대 및 동대학원 졸업
USC Jascha Heifetz Class 아티스트 디플롬 취득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백재진
서울대학교, 비안국립음대 졸업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바이올린 양경아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대학원, 메릴랜드 대학교(박사)졸업
2013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KNN방송교향악단 악장

비올라 최승룡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한세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이무지치첼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비올라 신종호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 Artist Diploma
뉴욕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음악 대학 석사
현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첼로 송희송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상 수상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첼로 이예성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원주시향, 울산시향 단원 역임, USP챔버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베이스 김창호
서울대학교, 비인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베이스 박대규
연세대학교, 뮌헨 국립음대 졸업(마이스터 과정)
바젤 국립음대 졸업(솔리스트 과정)
현재 독일 캠니츠 슈만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원

플루트 최정윤
함부르크 국립음대 졸업
하노버,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현재 독일브레머하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플루트 박지은
줄리어드 예비학교, 맨하탄 음대(학사), 예일 대학교(석사) 졸업
아피하 어워즈 하드슨 밸리 뮤직룸 콩쿠르 1등, 뉴인터내셔널 뮤직 콩쿠르 대상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보에 이승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안양예고 외래교수

오보에 이미성
서울대학교 졸업
Duquesne University, Pittsburgh, PA, USA, Artist Diploma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연세대학교·이화여대 외래교수

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뮌헨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체리티체임버앙상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

클라리넷 채재일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 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LA 오페라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바순 곽정선
서울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선화예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첼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론드헤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호른 준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
일본 쿠니타치 음악대학 졸업
도쿄시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아이치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그네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졸업
모스크바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롬본 김유석
미국 맨하탄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튜바 허재영
독일 퀼른국립음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타악기 최경환
서울대학교, 브뤼셀왕립음악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팀파니스트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하프 박라나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학사, 석사, 박사)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지휘자 다니엘 S 김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졸업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문의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051-661-4831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2016 2ND EULSUKDO OPERA FESTIVAL

Opera Macbeth

7.22(금) 오후 7:30 **7.23**(토)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kofac.or.kr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Hamlet

햄릿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2016.7.13.(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 후원 복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제작 ESTC 셰익스피어 | 작/연출 남육현 |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티켓 전석 1만원 | 문의 051)607-6066 | 관람등급 9세이상 | 러닝타임 110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의 세계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해설 금난새
바이올린 박진희
색소폰 김태현

PROGRAM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E. Grieg "Peer Gynt" Suite No.1

비발디 「사계」 中 "여름"
A. Vivaldi 'L'estate' from "Le quattro stagioni"

이투랄데 페퀘냐 차르다
P. Iturralde Pequeña Czarda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B. Britten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2016. 7. 27 수

오전 11:00 •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홍보팀), 607-3145(공연운영팀), 607-3151(정기회원)

입장권 균일 10,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할인 전화 예매시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20% ▶ 정기회원(인터넷예매 가능) | 예술인패스 소지자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명이상)할인 10%~30% 및 학생단체(5,000원권) ▶ 전화문의

CONTENTS

CULTURAL STORY

08 **커버스토리**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10 **7월 공연 캘린더**

12 **세계의 공연장**
클래식음악으로 하나되는 아 · 태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

16 **축제속으로 고고**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

18 **테마가 있는 여행**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

BOARDS INSIDE

26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50 **새로 나온 음반**

51 **새로 나온 책**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7월호 통권 295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6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Mozart · Opera Gala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가 7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따른 오페라 공연의 활성화와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뛰어난 독창성과 다양한 음악적 기법의 시도로 18세기 오페라를 완성한 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갈라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진 독일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객원지휘하고 강렬한 연기와 압도적인 성량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과 오스트리아 린츠 극장의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명주, 베를린 Weiler Manegement 소속가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동원,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한 무대에 선다. 해설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을 진행하며 최고의 해설자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전도사' 장일범이 맡아 모차르트 오페라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

콘스탄틴 트링크스

7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오페라 작품의 명쾌한 해석으로 전 세계 오페라극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는 독일 칼스루에 음대에서 귄터 라인홀에게 피아노를, 볼프-디터 하우쉴트에게 지휘를 공부한 후 바덴주립극장 오페라 코치 및 지휘자를 거쳐 자를란트 주립극장에서 2002년 제2지휘자, 2004년 제1지휘자, 2006년~2009년 음악감독 대행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9부터 2012년까지는 다름슈타트 국립극장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한 트링크스는 그 당시 '니벨룽의 반지',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등 정교한 연주로 국제적 갈채를 받았으며, 이후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비롯한 바그너의 극작품을 전곡 지휘하는 등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도 큰 명성을 얻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공부를 시작한 후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음악원과 독일 쾰른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난 2012년 세계 최고의 오페라 축제로 꼽히는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에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으로 발탁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피에르 불레즈, 세미욘 비쉬코프, 마르쿠스 스텐즈, 피터 루지카, 필립 조르당, 랄프 바이케르트, 빌 훔부르크, 핀카스 스타인베르그 등과 한 무대에 서온 사무엘 윤은 특히 구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 역으로 이태리 데뷔무대를 가진 후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4년 처음으로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파르지팔'로 데뷔무대를 가진 사무엘 윤은 2005년 '탄호이저', 2010년 '로엔그린'의 헤럴드 왕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2012년 타이틀 롤을 맡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3년 연속 바이로이트 바그너페스티벌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과 '로엔그린'의 주요 배역인 왕의 전령 역을 맡아 '바이로이트의 영웅'이라 불리며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사무엘 윤

케스트라 아카데미 특별연주회에서 오페라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출연한 후 서울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서울오픈에어 2009 능동숲속의무대 개관기념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이명주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 자선음악회 무대에 서기도 했다.

테너 김동원은 중앙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음악춘추콩쿠르 1등, 이대웅 성악콩쿠르 1등, 한미콩쿠르 대상을 비롯해 바르셀로나 Francisco Viňas 국제콩쿠르 특별상, 코부르크 Alexander Girardi 국제콩쿠르 1등, 트로기르 국제 테너 콩쿠르 1등 등 유명 국제콩쿠르를 석권했다. 유럽의 오페라전문지 '오펀벨트(Opernwelt)'가 주관한 2007/08년 시즌을 빛낸 '올해의 가수',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동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극장, 카셀 국립극장 전속주역가수를 역임하고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일본 도요타문화재단, 군마오페라협회 객원아티스트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3대 이탈리아 오페라인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와 독일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발췌한 하이라이트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소프라노 이명주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학술교류처(DAAD) 예술분야 장학생으로 독일 뮌헨음대에서 오페라과 디플롬 과정에 이어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조기졸업한 후 독일에서의 오페라 활동으로 독일신문 '아벤트차이퉁'지로부터 '금주의 스타(Der Stern der Woche)'로 두 번이나 선정되기도 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필하모닉오

이명주

김동원

장일범

07

2016 JULY

SUN	MON	TUE
	전시실 **2016 부산조각가협회전 – 중전시실** 6월 24일(금)–7월 2일(토) 문의:총무 송현철 010–2846–2146 *7월 2일(토) 오후 12:00까지 전시 진행 **제26회 국제서화예술전 – 대전시실** 7월 1일(금)–7월 3일(일) 문의:김종곤 010–4448–9553 *7월 1일(금) 오후 1:00 전시 오픈	**코믹스튜디오 – 대·중전시실** 7월 9일(토) 문의:주문도 010–3852–2393 **흙, 불을 만나다 '도예명장 단아 박광천 41주년 작품전시회' – 중전시실** 7월 15일(금)–7월 19일(화) 문의:전원도예연구소 010–5234–0459
3	**4** 대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19:30** 일반 1만원·학생 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	**5** 대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19:30** 일반 1만원·학생 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 중 **나드림미션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나드림미션콰이어(010–6573–7578)
10	**11**	**12** 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17	**18**	**19** 대 **ArtTalk Concert 19:00** 무료 동천고등학교 총동문회(010–5559–9120)
24/31 대 **2016 브니엘 무용 예술제 18:00** 무료/브니엘예술고등학교(070–581–8651, 513–9710)	**25**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19:30** 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	**26**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제16회 한국문인화대전 심사 – 중전시실 7월 23일(토) 문의:최연성 010–6229–3698		**1** 대 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시네마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사)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02–6292–9370)	**2** 소 토요상설무대 '경상도민요보존회' 16:00 선착순 무료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5)
6 대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19:30 일반 1만원·학생 5천원 부산무용협회(632–5116)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고전음악의 재발견'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1, 3148)	**7**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9:30 12만원·9만원·7만원·5만원·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소 제2회 레이비앙상블 정기연주회 20:00 균일 1만원/레이비앙상블(010–9841–1006)	**8**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 '말러 No.1 MAHLER Ⅰ'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	**9** 대 스카이블루에셋 우수고객초청 '김제동 토크콘서트' 13:30 초대(일반관객 관람불가) 스카이블루에셋(635–0028)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버슴새예술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
13 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라시아 세익스피어극단 '햄릿' 19:30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 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14**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4회 정기공연 '업경대'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54) 중 2016 제33회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00 무료/부산MBC사업부(760–1126) 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15**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4회 정기공연 '업경대' 19:3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 3154) 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7)	**16** 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17: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
20 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	**21** 야 부산시립무용단 2016 여름마당 춤 축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우천시 대극장)' 20: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소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10:10, 11:10 균일 6천원 극단 키즈샘&프렌즈(02–6203–6593)	**22** 야 부산시립무용단 2016 여름마당 춤 축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우천시 대극장)' 20: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23** 중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13:00, 15:00 균일 2만원/극단 해미소(1566–7623) 소 토요상설무대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16:00 선착순 무료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5)
27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	**28**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지휘자 이상렬과 함께 하는 2016 써머 판타지'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2)	**29**	**30** 소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Open Strings' 16:00 선착순 무료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5)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극장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클래식음악으로 하나되는 아·태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

The 1st Far Eastern Internationl Festival

'카리스마의 제왕', '마린스키의 차르'라 불리는 세계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예술총감독으로 있는 러시아 마린스키극장이 다가오는 여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클래식음악가들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축제를 개최한다. 바로 7월 30일 그 화려한 막을 여는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로, 8월 1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리한 마린스키극장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이하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❶ 마린스키극장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 전경

❷ 로비

❸ 대극장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는 블로디보스토크가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인 블리디보스토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그 해 문을 연 블라디보스토크 국립 연해주 오페라·발레극장의 전신으로, 올해 1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새롭게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그 이름도 마린스키극장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로 바뀌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가 흔히 연해주라 부르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구의 행정중심 도시로, 프리모르스키 지구는 동해(東海)와 둥베이(東北, 옛 지명은 만주) 지구 사이에 있으며 러시아 연방 극동 지방의 지구들 가운데 가장 작으며 최남쪽에 있다. 1926년 원래 소비에트 극동 공화국이었던 지역이 극동지구로 바뀌었고, 1938년 극동지구의 일부가 분리되어 지금의 프리모르스키 지구가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명물인 졸라토이(Zolotoi) 교각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7층 규모의 유리 건물로, 웅장한 계단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는 대규모 오페라와 발레공연을 위한 1,390석 규모의 그랜드홀과 실내악 콘서트를 위한 312석 규모의 챔버홀, 그리고 야외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랜드홀은 전 세계 공연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독특한 음향시스템으로 유명한데, 극장 천장에 자유로운 소리파동이 일어나도록 제작되어 청중석에 앉은 관객들이 마치 악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는 개관 후 러시아의 대표적인 발레공연을 비롯해 국제적인 수준의 오페라,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올해 예술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부임으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는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는 그 첫 무대로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과 열정적인 지휘로 '러시아 음악 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하는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러시아 3대 오페라극장으로 손꼽히는 마린스

발레 '호두까기 인형'

키극장 예술총감독 겸 수석지휘자, 런던심포니 수석지휘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예술대학 학부장,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마린스키극장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필, 뉴욕 필, 로테르담 필, 라 스칼라 필을 정기적으로 객원지휘하고 있으며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정부로부터 훈장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훈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서울을 찾은 발레리 게르기예프를 직접 만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를 통해 서병수 시장은 게르기예프로부터 러시아의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을 세계적인 극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극장 운영의 노하우를 듣고,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와의 다양한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은 지난해 10월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첼리스트 강승민, 피아니스트 손열음 등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차세대 연주자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마린스키극장의 가장 잘 알려진 솔로이스트에서부터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자 등 전 세계 명성있는 아티스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주창자이자 예술감독인 발레리 게르기예프는 국제극동페스티벌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클래식음악가들과 음악애호가들을 결속시키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

마리아 굴레기나 리사이틀

'제1회 국제극동페스티벌'은 오는 7월 29일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국제그랜드피아노콩쿠르 수상자들과의 협연무대로 꾸며지는 축제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12일간 다양한 무대의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개막날인 7월 30일에는 마린스키극장과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 소속 연주자들이 총출동하는, 프로코피에프의 오페라 '수도원에서의 결혼'이 블라디보스토크 초연무대로, 8월 2일과 5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나 마리아 마르티네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이 역시 블라디보스토크 초연무대로 선보이며, 7일에는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이 무대에 오른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7월 31일 바략 순양함 갑판과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에서 세 차례 열린다.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제9회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키코 스와나이, 제1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자들이 함께 한다.

8월 1일에는 마린스키극장과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의 연합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러시아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레드킨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2일에는 'Ocean All-Russian Children's Center'를 찾는 젊은 관객들을 위해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 오케스트라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4일에는 프리모르스키 지역 오케스트라와 제15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자인 첼리스트 강승민이, 6일과 7일에는 가장 유니크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마린스키 스트라디바리우스 앙상블의 무대가 제15회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6일), 제14회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쿠르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암스트롱(7일) 협연으로 두 차례 열린다.

마린스키극장의 스타 무용수들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뛰어난 객원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발레무대도 풍성하다. 우선 8월 3일과 4일에는 단막발레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발란신의 '심포니 in C', 알베르토 알론소의 '카르멘 모음곡', 제롬 로빈스의 'In the night', 그리고 한스 반 마넨의 '노인과 나'가 무대에 오르며, 6일과 8일에는 파리오페라단 제1무용수인 Hannah O'neil이 지젤로 출연하는 발레 '지젤'과 마린스키극장 수석무용수로 있는 김기민이 출연하는 '백조의 호수'가 선보인다.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0일 폐막공연에서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손열음, 그리스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협연하는 마린스키극장과 프리모르스키 스테이지의 연합 오케스트라 무대로 그 화려한 막을 내린다.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아키코 스와나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피아니스트 손열음

한여름 강원도에 부는 시원한 클래식 바람

2016년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 'BBB 자로…'

제13회 평창대관령음악제

대관령 산정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2016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7월 12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04년 미국 콜로라도 주 로키산맥 고지의 이름 없는 폐광촌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든 '아스펜음악제'를 그 모델로 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초대 예술감독인 세종솔로이스츠 예술감독인 강효 교수에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화, 정경화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세계적인 여름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의 타이틀은 'BBB 자로…'. 지난 3년간 북유럽,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지역을 테마로 했던 프로그램과

• 7월 12일(화)–8월 9일(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및 강원도 일원

• 대관령국제음악제 033-240-1360~3, www.gmmfs.com

달리 올해는 'The Immortal Classics(불멸의 클래식) : Bach, Beethoven, Brahms and Beyond'라는 주제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 위대한 3인의 거장과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르톡, 브리튼, 바버, 번스타인, 베리오, 불레즈를 비롯해 현존하는 작곡가인 윌리엄 볼컴, 크리스토퍼 베르크, 그리고 한국의 백승완까지 B자로 시작하는 위대한 음악가들 26인의 작품을 조명해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위해 위촉한 작곡가 크리스토퍼 베르그의 '처음 듣는 듯 달콤한, 그러나 이미 들은 이야기들 : 페르난두 페소아의 세 개의 시'를 세계 초연무대로 선보이며, 브루크너 '현악 5중주', 브루흐 '피아노 5중주', 보로딘 '현악 4중주 2번 라장조' 같은 평소 무대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작곡가들의 희귀한 작품들을 발굴, 소개한다.

올해 새로이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고음악 연주(원전연주)에서는 핀란드의 저명한 하프시코드 주자인 아포 하키넨이 이끄는 헬싱키 바로크 앙상블이 2009년 몬트리올 국제리코더콩쿠르와 런던 국제리코더콩쿠르에서 동시 입상해 화제를 모은 리코더리스트 권민석, 고음악계 스타인 소프라노 임선혜,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수석 오보이스트 알렉세이 오그린척, 애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 GMMFS 앙상블과 호흡을 맞춘다. 또, 그동안 음악과 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비중 있게 선보여온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올해 20세기 마임의 대명사 마르셀 마르소를 계승하는 세계적인 마임이스트 게라심 디쉬레브를 초청, 춤과 음악, 신체언어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올해도 여느 해처럼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주자들이 평창에 모인다. 정명화, 정경화 두 예술감독을 비롯해 미켈란젤로 4중단의 바이올리니스트 미하엘라 마틴,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 첼리스트 프란스 헬머슨과 바이올리니스트 보리스 브로프친, 스베틀린 루세브, 폴 황,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넘나드는 이유라, 그리고 첼리스트 지안 왕, 에드워드 아론, 오보이스트 알렉세이 오그린척, 소프라노 임선혜 그리고 노부스 콰르텟 등이 이번 음악제에 다시 합류한다. 트럼펫터 알렉상드르 바티,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 비올리스트 막심 리자노프 등 유명 연주자들과 젊은 실력파 연주자들인 피아니스트 김다솔, 김태형, 손열음, 클라라 주미 강, 신아라, 폴 황,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플루티스트 박지은이 다시 무대에 오르며, 피아니스트 노먼 크리거, 소프라노 엘리자벳 드 트레요, 메조 소프라노 모니카 그룹, 호르니스트 윌리엄 퍼비스, 바이올리니스트 라뒤 블리다르, 게라심 디쉬레브, 리코더리스트 권민석,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올리스트 박경민, 테너 김동원이 올해 음악제를 처음 찾는다.

음악제와 함께 명연주가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음악학교는 올해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오디션을 통과한 젊은 학생연주가들이 참가해 국제적 명성의 교수진과 현역 연주자,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들과 배움과 연주를 함께 한다.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음악학교는 올해 15개국에서 만 9세에서 29세까지의 학생 145명이 참가한다.

제13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저명연주가시리즈

제13회 평창대관령음악제 강릉 선교장 야외공연

영남루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

음력 5월 5일 단오가 하루 지난 6월 10일, 매실향 가득한 원동과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에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제117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에 떠나는 원동, 밀양여행에는 정기회원 가족들을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김은옥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지에서 펼쳐질 작은 무대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매실따기 체험

부산시립극단 낭독극 공연

한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원동 삼정지마을에 위치한 순매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KTX열차가 질주하는 경부선 철길을 끼고 있어 매화꽃 피는 봄이면 그 독특한 풍광을 담고자 하는 사진작가들로 항상 북적댄다. 원동 매실은 낙동강변 천태산 자락의 온화한 기후와 매실재배에 알맞은 일조건에서 재배된 것으로,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 곳 순매원에서는 매년 매화꽃이 피는 3월 매화축제와 함께 매실 수확기인 5~6월경에는 매실따기 체험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매실향이 가득한 순매원에 들어서자 순매원 주인인 김용구 씨가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김용구 씨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매실망을 하나씩 받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본격적인 매실따기에 나섰다. 나뭇가지 한가득 매달린 풍성한 매실로 어느새 매실망 하나를 가득 채운 정기회원들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자리 잡고 주인 김용구 씨가 제공하는 향기로운 매실차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다.

이어서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김은옥 씨가 준비한 낭독극 무대로, 그 옛날 청취자들을 라디오 앞으로 끌어당겼던 인기 라디오 드라마처럼, 희노애락 가득 담긴 단원들의 목소리 연기에 회원들은 어느새 낭독극에 푹 빠져든다. 낭독극에 이어 정행심 씨가 직접 지은 자작시 '아버지' 낭송과 노래 '한계령'까지 멋들어지게 부르자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온다.

순매원에서 준비한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영남루로 발길을 옮겼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영남루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해설사 황선미 씨가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영남루는 평양의 부벽루, 진주의 촉서루와 더불어 3대 명루(名樓)로 불리며,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건축미로 조선후기 대표적인 목조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누(樓)란 건물의 사방을 트고 마루를 높여 지은 일종의 휴식공간으로, 조선시대 밀양도호부 객사로 쓰이던 곳이다. 평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충량(衝樑)과 퇴량(退樑)은 물론 대형 대들보는 모두 화려한 용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당대 명필가와 대문장가들의 시문 현판들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영남루 경내에는 단군 이래 역대 8왕조 시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천진궁과 아랑의 전설이 서린 아랑각, 이별의 부산정거장, 굳세어라 금순아 등 해방전후 우리 가요계를 이끌었던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생가 등이 자리해있다. 영남루는 밀양강 옆 절벽 위에 위치해 웅장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그 경관이 수려하여, 1931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16경을 선정할 때 그 16경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지는 테마여행지는 해천항일독립운동테마거리로, 영남루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 지난해 개봉해 1,200만 관객이 넘는 흥행을 터뜨린 영화 '암살'에 나오는 대사이다. 밀양은 의열단 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 등 일제 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태어난 독립운동의 성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으로 손꼽힌다. 특히 시내 중심지인 내일동과 내이동을 경계로 흐르는 길이 600여m 해천 주변은 독립운동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함께 자란 곳으로 유명하다. 김원봉 선생 생가를 비롯해 윤세주 선생 생

❶ 영남루

❷ ❹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❸ 만덕문(천진궁)

❺ 밀양시립박물관 상설전시관

❻ 밀양시립박물관 화석전시관

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인덕, 김대지, 김병환, 황상규, 윤치형, 전홍표 선생 등 독립운동가 10여 명이 이곳 출신이라고 한다. 거리 벽면에는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70명의 명패가 붙여져 있어 밀양이 '독립운동의 메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천을 따라서는 '3·13 밀양만세운동' 등 13개 주제별 항일운동 관련 벽화도 그려져 있어 이 지역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함께 찍은 실물크기 사진의 벽화, 태극기 나무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밀양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지난 1974년 개관해 경상남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박물관인 밀양시립박물관. 지난 2008년 6월 20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밀양시립박물관은 영남지역을 휘돌아 남해로 들어가는 낙동강 하류 유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 총 8,200여 점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밀양답게 각종 그림과 글씨, 옛문서와 목판인쇄물, 조각과 공예품이 다양하게 소장, 전시되어 있으며, 고생대~신생대의 화석을 전시한 '화석전시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립박물관에는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조명해보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어 1919년 3월 13일부터 일어난 밀양 지역의 주요 만세운동과 파리장서운동, 밀양 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등 밀양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밀양시립박물관을 마지막으로 6월 테마여행을 마무리한 정기회원들은 한낮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던 선인들의 조국애를 기억하며 부산으로 향했다.

8월 12일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 여행

국내 최대, 최초의 남해유배문학관과 남해의 상징 마늘나라 전시관, 두모마을에서 여름을 즐기는 아름다운 보물선 남해 여행.

07: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두모마을 도착, 갯벌 바지락캐기 체험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4:00	남해유배문학관,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 탐방
16:00	부산 출발

9월 9일 포도향 가득한 영천 늦여름 여행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 하는 오감 여행을 시작으로 도계서원, 광릉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 영천 늦여름 여행.

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영천 도착, 포도따기 및 와이너리 체험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3:00	도계서원, 광릉 등 방문
17:00	부산으로 출발

07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은진(금정구 개좌로)
김영숙(남구 유엔평화로)
박정희(사하구 다대로)
배성희(해운대구 선수촌로)
손지원(부산진구 범전로)
신채윤(해운대구 대천로)
이현주(중구 중앙대로)
조성미(수영구 수영성로)
정희주(남구 석포로)
한준수(사하구 낙동대로)

기존 회원

김미자(서구 충무대로)
김은경(남구 유엔로)
박종태(연제구 법원북로)
안귀녀(영도구 절영로)
이근희(해운대구 반여로)
이행자(사하구 낙동대로)
전상호(해운대구 대천로)
조미연(동래구 안남로)
하문웅(수영구 수영로)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607-3100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부산연극 역사의 힘 Ⅱ

SUPER DAD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2016.7.12(화)~16(토) 평일 7시30분 / 주말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입장권 | 1만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607-3107(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할인 | 20%(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년, 중·고생(전화예매시))

50%(장애우(1~3급 등반1인, 4~6급 본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전화예매시))

예술감독 **곽종필** 작 **김태수** 객원연출 **전승환** 무대감독 **정순지** 조명디자인 **이명건** 음악 **박인규** 무대디자인 **황경호** 조연출 **안예은** 기획 **조승환** 홍보 **조영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

2016. 7. 20(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팬플룻
루이스 다비드 베루가치

아이리쉬휘슬
박혜리

반도네온
박진선

오카리나
박종근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PROGRAM

❶ **세계명곡기행** 편곡 : 김기범

❷ **팬플룻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편곡 : 백규진 | 팬플룻 : 루이스 다비드 베루가치 (Luis David Perugachi)
▶외로운 양치기 ▶엘콘도로파사

❸ **아이리쉬휘슬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편곡 : 백규진 아이리쉬휘슬: 박혜리
▶유레이즈 미업 (You Raise Me Up) ▶대니보이 (Danny Boy) 외

❹ **트럼펫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편곡: 박휘철 |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밤하늘의 트럼펫 ▶아베마리아 ▶나폴리 댄스

❺ **오카리나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편곡 : 백규진 | 오카리나 : 박종근, 이석화, 김영선, 강상미, 고서란
▶Whenever, Whenever (언제나,어디서나) - Shakira ▶La Bamba

❻ **반도네오니스트 진선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편곡 : 백규진 | 반도네오니스트 : 진선
▶여인의 향기 ▶리베르탱고

❼ **사물놀이 협주곡 [태백의 춤]** 작곡 : 최상화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 장 료 A석 10,000원, B석 5,000원

공연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홍보팀) 607-3143(공연운영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이 있는 날 에 한함)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지휘자 이상렬과 함께하는

2016 써머판타지

SUMMER FANTASY

Program 꽃에게 / 가시리 / 부끄러움 / Serenity / Lamentation of Jeremiah
Love is the answer Rack-A my soul / Rosas pandan /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말은 / 달팽이 / 일어나 쾌지나 칭칭 / 경북궁 타령 / 담배가게 아가씨 / 아름다운 나라

2016. 7. 28 | 목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CULTURE LIFE

July 2016
vol.295

INVITATION TO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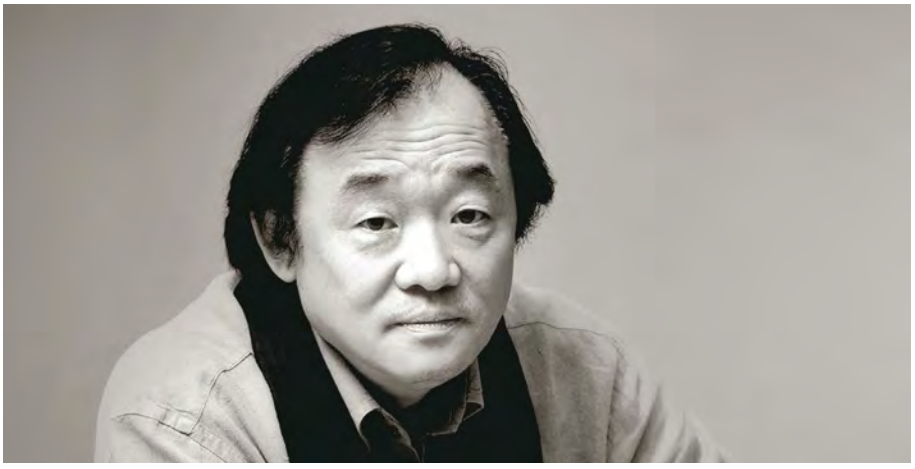
26 프리뷰 36 리뷰 38 프로그램 가이드 50 새로 나온 음반 51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백건우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순례자',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피아노의 거장 부조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7.7(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부조니 콩쿠르에서 지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골드 메달을 수상하는가 하면 2000년 부조니가 편곡한 작품으로만 앨범을 발매하면서 '우리 시대의 부조니'라 평가받는 백건우가 부조니의 대표곡을 연주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음악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풍부한 레퍼토리와 서정적인 피아니즘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백건우는 10세에 불과한 나이로 국립관현악단과 함께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전통을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한 백건우는 줄리어드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후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독일의 명 피아니스트 빌헬름 켐프를 사사했다. 백건우는 1967년 나움버그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1969년 리벤트리 콩쿠르 결선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부조니 콩쿠르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이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황금 디아파종상 수상, 프랑스 3대 음악상 수상 등으로 음악적 명성을 쌓았다.

백건우는 리스트와 무소르그스키, 쇼팽과 베토벤까지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작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1972년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처음으로 라벨의 독주곡 전곡을 연주한 후 베를린과 런던, 파리에서 연주함으로써 라벨의 뛰어난 해석자로서 입지를 굳힌 백건우는 1991년 5월 '프로코피예프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프로코피예프의 5개의 협주곡 모두를 연주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RCA 레이블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발매, '러시아 사람보다 더 라흐마니노프를 잘 이해하는 연주자'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지난 2005년에는 데카에서 베토벤 소나타 32작품을 녹음하기 시작해 2007년 베토벤 소나타 32작품 녹음 완성을 축하하는 8번의 리사이틀을 중국과 한국에서 열기도 했다. 백건우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문화훈장,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조니의 곡을 '우주를 뒤흔드는 음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 백건우는 이번 무대에서 부조니의 '엘레지 BV249' 중 제2곡 '이탈리아로!'(나폴리 풍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따른 환상곡 '아버지의 추억에 부침 BV253', '엘레지 BV249' 중 제4곡 '투란도트의 규방'(간주곡), 소나티네 제6번 '카르멘에 실내악 환상곡 BV284' 등 부조니 곡으로 1부 무대를 꾸민다. 이어 2부 무대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작곡가인 라벨 '소나티네'를 비롯해 드뷔시 '프렐류드 제1권' 중 제3번, 6번, 7번, 쇼팽의 '스케르초 제1번 작품 20', '스케르초 제2번 작품 31'을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
말러 No.1 MAHLER Ⅰ

지휘 귄터 노이홀트 Günter Neuhold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선율, 그리고 전율 넘치는 사운드로 듣는 이를 압도하는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가 7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7.8(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작곡가 말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에스트로 귄터 노이홀트가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말러 교향곡 외에도 지난 2015년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협연을 맡아 친근한 선율과 단순 명쾌한 구성, 감명 깊은 아다지오 등으로 사랑받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준다.

지난 1976년 플로렌스 콩쿠르와 산레모 마리누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무대에 진출한 지휘자 귄터 노이홀트는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심포니 수석지휘자,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로열 플레미쉬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및 음악감독, 독일 카를스루에의 바덴국립극장 음악감독, 브레멘극장 음악감독 및 예술감독, 스페인의 빌바오 심포니 수석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으며 미국,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오케스트라, 극장, 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추며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곡인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은 오늘날 '서양 음악사를 바꾼 거인의 힘찬 첫 발자국'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나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교향곡 체계에서 벗어나는 대담한 시도로 비평가들과 청중들로부터 모두 외면을 받았던 작품이다. 제목인 '거인'은 당시 그가 심취해 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가 장 파울의 동명의 시에서 가져왔으나 작품 자체의 음악성은 청년기의 고뇌와 기쁨 등 낭만적 서정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그의 전작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선율이 사용되고 있어 제목의 인상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러 교향곡 제1번 연주에 앞서 이번 정기연주회 첫 곡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제21번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준다. 1781년,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는 당시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그의 피아노 협주곡들이 주목받으면서 빈 최고의 작곡가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가 작곡한 23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절반 이상인 12곡이 이 시기에 완성된 곡으로 특히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은 모차르트 최고의 전성기 시절, 천재적 능력이 발휘된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2009 인터라켄 클래식 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0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입상, 2012 윌리엄 카펠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실내악상, 2012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2013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1위에 이어 2014년 한국인 최초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1위 수상으로 음악계를 놀라게 한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2008년 카네기홀 와일리사이틀홀에서의 뉴욕 데뷔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솔리스트뿐만 아니라 협연자, 실내악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0년대 들어서 지칠 줄 모르는 초특급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선우예권은 올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의 왕성한 연주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예술감독 곽종필

연출가 전승환

부산 연극판을 열정으로 이끌어온 연출가 전승환과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극작가 김태수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이 7월 12일부터 5일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7.12(화)–**16**(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47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들어 마련한 '부산 연극 역사의 힘' 두 번째 무대로, 지난 3월 부산시립극단과의 17년만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원로연출가 허영길에 이어 극단 전위무대 대표로 부산의 연극판을 꿋꿋이 지켜온 연출가 전승환이 부산시립극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연출가 전승환은 오랜 시간 많은 작품활동을 통해 검증받은 작가이자 연출가로, 사실적이면서도 담백한 작품 스타일과 그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소소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녹여내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이 보인다'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극작가 김태수의 희곡 '그 가족이 수상하다'로 관객들과 만난다.

'엄일탁! 우리 아부지'라는 부제가 붙은 '그 가족이 수상하다'는 지난 2013년 극단 치악무대가 군(軍) 관련 컨텐츠 수기 공모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극작가 김태수가 새롭게 창작한 희곡으로, 평생 집단문화에 젖어 생활해온 퇴역군인과 그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갈등과 치유과정을 경쾌한 화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군부대가 멀지 않은 어느 소도시,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다 부상을 당해 제대한 일탁은 오늘도 딸과 말다툼이다. 엄격함이 몸에 밴 일탁으로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딸이 늘 불만이다. 하지만 서른이 넘어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딸 진주는 불통의 이미지가 강한 아버지가 제대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명령하고 지시하는 습관을 떨궈내지 못한 게 역시 불만이다. 엄마의 죽음이 아버지의 바로 그 군대식 권위와 냉혹한 신념에서 빚어졌으며, 동생 태규가 가출한 이유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탁은 자기에 대한 그런 평가가 못마땅하다. 자식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롭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날, 세를 놓은 빈방에 인근 부대의 정보과에 근무하는 젊은 장교 오대위가 들어오게 되는데…. 연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는 퇴역군인인 아버지 엄일탁과 그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코믹하면서도 따뜻한 휴먼 드라마이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황창기가 독불장군 엄일탁 역을, 김은옥이 엄일탁의 딸 진주 역을 맡았으며, 아들 태규 역에 전현준, 엄일탁의 죽마고우 양춘식 역에 서보기, 오대위 역에 장현준, 여손님 역에 이현주, 택배원 역에 정행심이 맡아 웃음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예술감독/ 곽종필
- 작/ 김태수
- 객원연출/ 전승환
- 출연/ 이현주,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전현준, 장현준, 정행심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햄릿'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햄릿'

2016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셰익스피어 전문극단인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이 셰익스피어 대표작 '햄릿'으로 부산을 찾는다.

7.13(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지난 2002년 셰익스피어 연극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연구한 연출가 남육현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연극을 좋아하는 연극인들로 창단한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은 창단 후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39편 전 작품 공연 프로젝트'라는 대장정을 진행해오면서 현재까지 39편의 전체 작품 중 17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특히 2002년 11월 극단 창단 공연으로 선보인 '베로나의 두 신사'를 시작으로 2012년 9월 '헨리6세'까지 14편의 작품을 모두 국내 초연작으로 선보인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은 국내 최초로 영국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음모와 암투가 펼쳐진 장미전쟁 87년간의 격변의 역사를 다룬 셰익스피어 대서사극 '장미전쟁' 8부작을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무대에 올리면서 당시 국내 연극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대표인 남육현의 번역, 연출로 만나는 연극 '햄릿'은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의 '셰익스피어 39편 전 작품 공연 프로젝트' 17번째 작품이자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과 서거 400주년을 맞아 마련한 '4대 비극 시리즈' 중 '멕베스'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셰익스피어 39편 작품 중에서도 최상의 전성기, 원숙기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셰익스피어 희곡 중 가장 긴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누군가에 의해 공연되고 있는 '햄릿'은 12세기 덴마크 왕가를 배경으로, 왕자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연출가 남육현은 이번 무대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도 대사 75%가 아름다운 시(詩)로 구성된 '햄릿'의 고전적 품격과 원전의 향취를 가능한 살리되 고도로 훈련된 연기술과 음악, 무대미술 등을 통해 현대 관객들의 감성과 욕구에 맞는 정통 셰익스피어 무대를 선사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고뇌, 우정과 배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사랑의 조건과 상황, 아비와 자식 간의 천륜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과 개인의 책임문제 등 햄릿 자신은 물론 그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 인과상황의 덫 속에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삶의 복합적 극적구조를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 번역, 연출/ 남육현
- 출연/ 문원준, 류재필, 김현숙, 이계영, 정영신, 이석우, 김기현, 이훈희, 최우석, 국호, 김보예, 전세계, 이진설, 이수현, 류송, 박수빈, 현승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기획프로그램 사업인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햄릿'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제74회 정기공연
업경대(業鏡臺)_A Man's Requiem

예술감독 김용철

지난 3월,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과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무용단이 2016년 첫 정기공연으로 창작춤 '업경대'를 무대에 올린다.

7.14(목)–**15**(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업경대'는 김용철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아 지난 2010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식초청작으로 선보여 그 당시 불교적 세계관을 동양적 감성으로 밀도 있게 형상화하여 침체기에 처했던 한국창작춤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전통춤사위의 적절한 변용과 특유의 몸짓언어로 주목받으며 그해 대한민국무용대상 군무부문 베스트5, 한국춤비평가협회 작품상 베스트6, 공연과 리뷰 PAF 춤 작가상, 연낙재 무용작품 베스트5 등 주요 상을 휩쓸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품명인 '업경대(業鏡臺)'는 사람이 죽어서 명부(저승)로 넘어갈 때 생전의 죄업을 비춰주는 거울을 뜻한다.

한국적인 소재의 현대적 수용, 한국춤과 컨템퍼러리 댄스의 경계와 접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업경대'는 1장 '거울이 부르는 노래', 2장 '영혼의 습지', 3장 '욕망의 무게', 4장 '지워진 자를 위한 난장'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철 예술감독은 이번 무대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49일간의 생사관을 제의적 형식 속에 응축시켜 죽음과 심판이라는 자칫 무거운 구도를 다양한 안무 포맷과 무대 연출을 통해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눈보라를 연상케 하는 무대미술, 거대한 천이 휩쓸고 간 무대, 종이의 구김소리 등 소도구적 무대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지를 극대화시켰으며 무용수들의 절제된 내면연기와 결합된 역동적 춤사위를 통해 이미지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한국 창작춤의 선두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철 예술감독은 계명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을 거쳐 구미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자신만의 고유한 춤 미학을 견지하고 있는 그는 한국춤의 전통을 계승하되 창작춤에 있어서는 현대성, 다양성 등 현대예술이 요구하는 고도의 테크닉과 기교를 겸비하고 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안무작으로 1997년 제1회 서울미래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붉디 붉은'을 비롯해 '우화시리즈', '아수라시리즈', '달콤한 밤', '바랏-살', '흑살풀이', '업경대', '늙은여자', '날과 줄' 등이 있다.

프로그램

1장/ 거울이 부르는 노래
2장/ 영혼의 습지
3장/ 욕망의 무게
4장/ 지워진 자를 위한 난장
• 안무/ 김용철(예술감독)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

지휘 이정필

우리 귀에 친숙한 추억 속 세계 명곡을 흥겨운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이 7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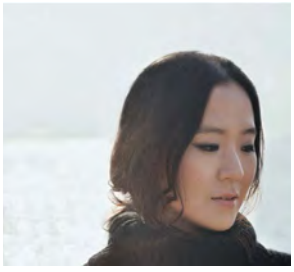
7.20(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반도네온 박진선

아이리쉬휘슬 박혜리



오카리나 박종근

트럼펫 드미트리 코카렌코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팬플루트, 아이리쉬휘슬, 반도네온, 오카리나 등 세계 민속악기와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세계민요, 영화 OST, 팝송 등 대중적인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첫 번째 무대는 고전에서 현대까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작곡가 김기범이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한 '세계명곡기행'으로 음악여행의 시작을 알린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을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왈츠',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엘가의 '사랑의 인사', 라벨의 '볼레로', 모차르트의 '아이테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흥겨운 국악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파이프 악기의 어머니'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인 '팬플루트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무대로, 팬플루트의 환상적인 선율 속에 양치기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절절하게 표현된 팬플루트 명곡 '외로운 양치기'와 페루 민요에 가사를 붙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를 에콰도르 출신의 안데스음악 뮤지션 루이스 다비드 베루가치의 팬플루트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으로 꼽히기도 한 시크릿가든의 'You Raise Me Up', 잉글랜드 포크송으로 유명한 '대니보이'를 박혜리의 아이리쉬휘슬 연주로 들려준다.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밤하늘의 트럼펫'과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나폴리 댄스'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협연으로, 콜롬비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라틴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샤키라의 히트곡 'Whenever, Whenever', 멕시코의 전통 구전민요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La Bamba'는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이석화, 김영선, 강상미, 고서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탱고음악인 'Una Por Cabeza', '탱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아졸라의 대표곡 '리베르 탱고'는 탱고하면 빠질 수 없는 악기 반도네온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반도네온 연주를 들려줄 반도네오니스트 박진선은 이탈리아 반도네오니스트 페사레 끼아끼아레따로부터 사사받은 국내 유일의 유럽파 정통 반도네온 연주자로, 피아졸라, 로드리게스 등 정통 탱고부터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작곡가 최상화 곡 사물놀이 협주곡 '태백의 춤'으로, 삼도농악에서 굿거리 궁채 24박, 별달거리를 사용하여 흥겹고 경쾌하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지휘 금난새

바이올린 박진희

색소폰 김태현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6년 무대가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7.27(수)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오랜 세월 청소년들과 함께 해오면서 요즘은 '클래식은 내친구'를 듣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장해 어느새 부모가 되어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공연장을 찾고 있다.

이번 2016년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및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뉴월드필하모닉 바이올린 수석 박진희, 서울예고 2학년 김태현의 색소폰 협연으로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작품 46, 비발디 '사계' 중 '여름', 페드로 이투랄테 '페퀘냐 차르다',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들려준다.

가장 친근한 클래식 음악인으로 꼽히는 지휘자 금난새는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으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0년대 서울 예술의전당 제안으로 시작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6년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도서관 음악회, 로비 콘서트, 갤러리 음악회, 마라톤 음악회, 울릉도 음악회, 동대문 시장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대중과 클래식을 이어주며 클래식 음악 보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난새는 현재 뉴월드(구, 유로아시안) 필하모닉 CEO겸 음악감독,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 총감독, 한경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 한국 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KUCO) 지휘자, 라움아트센터 예술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무대는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입센의 동명 시극을 위해 작곡한 극음악 '페르귄트' 모음곡을 들려준다. 그리그는 총 23곡으로 이루어진 극음악 '페르귄트'에서 각각 4곡씩을 뽑아 모음곡 제1번과 제2번을 엮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아침의 기분', '오제의 죽음', '아니트라의 춤', '산신의 전당에서'로 구성된 모음곡 제1번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공전의 히트작인 '사계' 중 '여름'을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가, 색소폰의 비르투오조적인 기교를 바탕으로 집시 특유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이투랄데의 '페퀘냐 차르다'는 김태현의 색소폰 협연으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영국 작곡가 브리튼이 영국 정부가 교육용으로 제작한 관현악 해설영화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를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지휘자 이상렬과 함께하는 2016 써머 판타지

지휘 이상렬

5월 '가요합창음악회'와 더불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부산시립합창단 '2016 써머 판타지'가 7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7.28(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인 '써머 판타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익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상렬이 오랜만에 부산관객과 만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지휘자 이상렬은 지난 1992년 대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발탁된 후 대전지역 합창의 새로운 장을 연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부산시립합창단 제6대 지휘자로 활동무대를 옮겨 완벽하고 원숙한 곡 해석력과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 참신한 연주 기획력으로 부산시립합창단을 최고의 합창단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상렬은 특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연주의 감동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1994년부터 음반작업을 시작해 제1집 '봄을 위한 환상곡'을 시작으로 7장의 음반을 출반, 지금까지도 합창음악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단원 개인의 기량향상을 통한 부산시립합창단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가져온 이상렬은 1997년 호주, 뉴질랜드 순회연주를 기획, 현지 교민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우리의 정서와 노래로 표현한 합창음악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현지 합창음악계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상렬 지휘자는 국립합창단을 비롯하여 대구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천안시립합창단, 군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을 객원지휘했으며, 2012년부터는 익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그동안의 경험과 집약된 연주 역량을 통해 그 결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준 높은 전문 합창곡에서부터 국민적 사랑을 받고있는 국내외 가요, 팝음악을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 있는 합창음악으로 편곡,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혼성합창/ 꽃에게(이호준 곡), 가시리(조혜영 곡), 부끄러움(이흥렬 곡, 이민정 편곡), Serenity(Ola gjeilo 곡), Lamentation of Jeremiah(Z. Ranall Stroope 곡), Love is the answer(Raymond R. Hannisian 곡), Rack-A my soul(Uzee Brown, Jr. 편곡), Rosas pandan(George G. Hemandez 편곡)

여성합창/ 바람이 분다(이승환 곡, 이범준 편곡), 사랑한다는 말은(김미선 곡)

남성합창/ 달팽이(이적 작곡, 김미선 편곡), 일어나(김광석 곡 , 김준범 편곡), 쾌지나 칭칭(오병희 곡), 경복궁 타령(이선택 편곡)

BUSAN INTERNATIONAL
KIDS&YOUTH FILM FESTIVAL

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발칙하게 생각하고, 당차게 말하며, 영상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하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화축제 '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I)'가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영화의전당과 부산콘텐츠코리아랩에서 펼쳐진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뗀 후 2014년까지 국제어린이영화제로 운영해오다 지난해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가족 중심의 대중적 영화축제로 거듭났다.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주제는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20여 개국 140여 편의 작품이 초청, 상영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새로운 감성의 세계로 안내할 큰나래모음(장편 초청작)과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은나래 모음(단편초청작),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레디~액션!'과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 청소년 제작 영화 초청 섹션 '리본 더 비키(ReBorn the BIKY), 영화의전당 내 텐트극장에서 상영되는 6세 미만 유아 대상 영화모음 '텐트극장–옹기종기', 여름밤 하늘 아래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야외상영작 모음 '야외극장–달빛별빛'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레디~액션!'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진행한 결과 중국, 스페인 등 해외작품을 포함해 역대 최다 출품작인 총 207편(어린이 125편, 청소년 82편)이 접수되어 이중 본선진출작으로 선정된 30편이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레디~액션!' 심사는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와 전년도 '레디~액션!' 수상자가 심사를 맡아 수상자를 결정한다.

01_ 개막작 '롤라'
02_ 영화감독 이준익
03_ 영화 '동주'
04_ 영화 '4등'
05_ 제10회 BIKY 개막식 축하공연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 외에도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씩씩하고 용감한 소녀 롤라의 이야기를 담은 유쾌한 독일영화 '롤라'가, 폐막작으로는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줄린어린이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벨기에, 프랑스 합작영화 '아름다운 여정'이 상영된다. 또 올해 2월 개봉되어 평단과 흥행, 양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제5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비롯해 지난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메세나상' 수상을 시작으로,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6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 제21회 인디포럼 등 각종 주요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대상인 '뉴-비젼상'을 수상한 강석필 감독의 성장 다큐멘터리 영화 '소년, 달리다', 2016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초청작인 이성강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카이:거울 호수의 전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예리하게 꼬집은 정지우 감독의 수작 '4등', 아동학대를 소재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 등 각종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던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특히 7월 20일 영화 '동주' 상영 후에는 영화 상영 후 관객둘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는 BIKY 섹션 '공감토크:문'을 통해 이준익 감독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야외극장-달빛별빛'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치킨런'과 '월레스와 그로밋'을 제작한 클레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의 명가 아드만의 신작 '숀터쉽'과 아기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야니시 다쓰야의 그림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고녀석 맛나겠다2: 함께라서 행복해' 등 동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상영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더빙체험 프로그램 '나도 성우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작 프로그램 '시네마 스포츠' 외에도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선율과 애니메이션 영화가 어우러지는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음악회', 극단 학전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일반상영작 균일 6천원** (부대행사 관람료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0회 정기연주회

신설령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가 객원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의 지휘로 열렸다. 그 시작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이다. 그가 이끄는 연주무대는 젊고 패기가 넘치고, 그 넘치는 패기로 인해 오케스트라는 거침없이 음악적 항해에 나선다.

두 번째 무대는 스베틀린 루세브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이다. 불가리아 출신인 루세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으며 다양한 연주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한 바 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는 테크닉이 뛰어나고, 바이올린 음색은 정말 예쁘다. 1악장에서 현란한 테크닉으로 몰아가던 연주에 이어 2악장에서는 마음껏 노래하며 깊은 서정성을 드러냈다.

그런데 바이올린 협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의 연주가 한 몫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악장에서 바이올린과 목관악기의 앙상블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다. 트링크스의 지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피아니시모로 연주하는 여린 소리도 객석에 들리게 오케스트라의 음량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고,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긴밀하게 함께 어우러지도록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6년 객원지휘자와 함께 객원 악장 체제로 연주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날 객원 악장은 바이올린 협연자로 나섰던 스베틀린 루세브가 맡았다. 객원 악장의 빛나는 음색이 더해지면서 바이올린 파트에 힘이 실린다.

베토벤 교향곡 연주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좋은 연주자가 많고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점이다. 박진감 넘치는 1악장은 젊은 영웅을 그려냈고, 때에 따라 유연하게 노래하여 풍부한 표현도 나타냈다. 2악장에서 베토벤은 목관악기에 애정을 가졌는지 아름답게 노래하는 부분을 오보에 등 목관악기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는 부분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다. 좋은 연주를 들려준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휘자 트링크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를란트 국립극장 음악감독 대행으로 있으며 다양한 오페라를 지휘했고, 2009년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음악감독으로 있으면서 바그너 오페라들을 무대에 올리고, 또한 많은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객원 지휘한 바 있다. 물론 또 다른 교향악단들과 함께 교향곡 지휘 경력도 쌓아오고 있다.

트링크스의 지휘는 섬세하다. 프레이즈마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인을 주고 에너지 넘치게 지휘를 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다. 그런데 세밀한 부분들을 엮어 전체적으로 음악적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더 보였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의 음악적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가? 객원 지휘자는 수석 단원 중심으로 바라보며 지휘하기가 쉽다. 그런데 객원 지휘자가 모든 단원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늘 같이 연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단원들을 파악하고 이끌어 나가는 상임 지휘자의 몫이다. 유명 지휘자를 초청해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감으로 얻는 유익은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휘자를 하루 빨리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 지휘자를 통해 그의 음악 철학을 담은, 보다 길게 내다보며 세운 기획력 있는 연주무대를 보기를 기대한다.

Review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보도

남인용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발생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와 어린이 수영장 사고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정말로 사고 예방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뉴스로 다루어지지만 매번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사고를 보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들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뉴스를 탈피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송의 역할에 주목할 때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뉴스의 대부분은 사고로 희생된 수리 용역업체 직원의 애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용역업체 직원으로 갖는 불안정한 지위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혼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근무 여건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망한 수리 기사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변해갔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뉴스에서 집중해서 부각될 필요가 있었던 쟁점은 스크린 도어 사고가 서울메트로 관할인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에서만 발생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인 5, 6, 7, 8호선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관리하는 스크린도어의 수는 비슷한데도 서울메트로의 고장 건수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비해 10배나 많았는데, 하도급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외견상의 차이와 함께 보다 본질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분석보도가 진작 활성화되었다면 이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영장에서 수영 교육을 받던 어린이 사망 사고가 고양과 인천에서 연속해서 발생했다. 고양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면 인천에서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첫 번째 사고는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발생했고, 두 번째 사고는 피해 어린이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수영 연습을 하다가 킥판을 놓치면서 물에 빠져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영장의 물 깊이가 어린이 수영 교육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정 신장의 어린이를 교육하려면 그보다 얕은 깊이의 수영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영 교육에 반영했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부경대 트와이스 공연 당시 채광창 추락사고 등도 모두 적절한 규정이나 안전 의식 미흡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 보도는 안전규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었는가 보다 안전규정을 준수했는가를 살피고 있었다. 법적 처벌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다. 안전 규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사고는 어떤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고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미리 언급하면 재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있는 위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낙관적 편견이라고 정의되는 이러한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정부나 언론은 국민의 특성에 맞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운영체계를 모방하기만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방송 뉴스의 장점은 영상과 음향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실감나게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이 대안을 모색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방송 뉴스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일 시 | 7월 4일(월)–6일(수)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 632–5116

•••

부산지역 창작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펼쳐지는 무용 예술가들의 축제이자 경연장인 2016 제25회 부산무용제.

4일 참가작
부산발레연구회 'Pleasing Chaos(혼돈, 그 시작의 알림)'(안무/홍상은)
현대무용단 자유 'Repetition of O(O의 반복)'(안무/문은아)

5일 참가작
강미리 할 무용단 '내 안으로'(안무/한지은)
이태상 프로젝트 '컨템포러리 굿(contemporary GUT)'(안무/이태상)
댄스시어터 줄라이 '금홍아 금홍아'(안무/박재현)

6일 참가작
손영일무용단 '잊혀질 권리'(안무/손영일, 2015 부산무용제 대상작)
폐막축하공연 '부산시민대동춤'

나드림미션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나드림미션콰이어 010–6573–7578

•••

무반주 교회음악과 현대 성가, 청소년들이 즐겨부르는 애창합창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힘써온 청소년합창단 나드림미션콰이어의 6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08년 창단 후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교회, 군부대, 병원, 축제, 해외연주회 등 초청연주회를 통해 음악전도자의 역할을 해온 나드림미션콰이어는 특히 매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통일을 기원하며 북한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빵 보내기 기금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터키 유라시아 유스콰이어가 특별출연, 나드림미션콰이어와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 지휘/전경일(상임지휘자)
- 반주/김지윤
- 게스트/테너 안경진, 이웅빈, 피아노트리오 Amor (피아노 전보라, 바이올린 노영은, 첼로 정지은), 나드림난타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고전음악의 재발견

일 시 | 7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3+1 가족이벤트로 티켓 3매 구입시 1매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1, 3148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객원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목관앙상블 나루 멤버로 활동 중인 오보이스트 조정현, 경성대학교 교수, 뮤즈앙상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협연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프로그램|
이베르/실내악을 위한 디베르티스망
마르첼로/오보에 협주곡 라단조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레스피기/'새' 모음곡

- 지휘/이동신
- 협연/조정현(오보에), 임병원(바이올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건반 위의 순례자',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피아노의 거장 부조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부조니 콩쿠르에서 지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골드 메달을 수상하며 '우리 시대의 부조니'라 평가받는 백건우가 부조니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부조니/'엘레지 BV249' 중 제2곡 '이탈리아로!' (나폴리 풍으로)
부조니/'아버지의 추억에 부침' BV253
부조니/'엘레지 BV249' 중 제4곡 '투란도트의 규방' (간주곡)
부조니/소나티네 제6번 '카르멘에 실내악 환상곡' BV284
라벨/소나티네 등

제2회 레이비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레이비앙상블 010–9841–1006

•••

바이올리니스트 김지훈, 손모아, 첼리스트 황선지, 플루티스트 이용현, 클라리네티스트 최인구, 피아니스트 송현섭, 박은혜, 이상미 등 고신대학교 기악과 동문들로 구성된 레이비앙상블의 무대.
전자음악으로 메말라 있는 감성들을 클래식음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모인 레이비앙상블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편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F.A.E. 소나타 중 스케르초 다단조
R. 컴톤/C.S. 행진곡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3중주 제4번 작품 11
히사이시 조/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중 'Merry go round of life'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
말러 No.1 MAHLER I

일 시 |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2만원, 1만 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선율, 그리고 전율 넘치는 사운드로 듣는 이를 압도하는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말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에스트로 귄터 노이홀트가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말러 교향곡 외에도 지난 2015년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친근한 선율과 단순 명쾌한 구성, 감명 깊은 아다지오 등으로 사랑받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말러/교향곡 제1번 '거인'

- 지휘/귄터 노이홀트
- 피아노/선우예권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휴먼가족극 그 가족이 수상하다

일 시 | 7월 12일(화)–16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47

부산 연극판을 열정으로 이끌어온 연출가 전승환과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극작가 김태수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그 가족이 수상하다'.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들어 마련한 '부산 연극 역사의 힘' 두 번째 무대로, 극단 전위무대 대표로 부산의 연극판을 꿋꿋이 지켜온 연출가 전승환이 부산시립극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엄일탁! 우리 아부지'라는 부제가 붙은 '그 가족이 수상하다'는 평생 집단문화에 젖어 생활해온 퇴역군인과 그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갈등과 치유과정을 경쾌한 화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예술감독/곽종필
- 작/김태수 • 객원연출/전승환
- 출연/이현주,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전현준 장현준, 정행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 '햄릿'

일 시 | 7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2016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셰익스피어 전문극단인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이 선보이는 연극 '햄릿'.
지난 2002년 연출가 남육현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연극을 좋아하는 연극인들로 창단한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은 창단 후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39편 전 작품 공연 프로젝트'라는 대장정을 진행해오면서 현재까지 39편의 전체 작품 중 17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극단 대표인 남육현의 번역, 연출로 만나는 이번 무대는 '4대 비극 시리즈' 중 '멕베스'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셰익스피어 39편 작품 중에서도 최상의 전성기, 원숙기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번역, 연출/남육현
- 출연/문원준, 류재필, 김현숙, 이계영, 정영신, 이석우, 김기현, 이훈희, 최우석 외

부산시립무용단 제74회 정기공연

업경대(業鏡臺) -A Man's Reguien

일 시 | 7월 14일(목)–15일(금)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지난 3월,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과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무용단이 2016년 첫 정기공연으로 선보이는 창작춤 '업경대'.
김용철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아 지난 2010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식초청작으로 선보여 그 당시 불교적 세계관을 동양적 감성으로 밀도있게 형상화하여 침체기에 처했던 한국창작춤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업경대'는 특히 전통춤사위의 적절한 변용과 특유의 몸짓언어로 주목받으며 그 해 대한민국무용대상 군무부문 베스트5, 한국춤비평가협회 작품상 베스트6, 공연과 리뷰 PAF 춤 작가상, 연낙재 무용작품 베스트5 등 주요 상을 휩쓸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안무/김용철(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ArtTalk Concert

일 시 |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천고등학교 총동문회 010–5559–9120

동천고등학교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개교 36주년을 기념하고 평소 공연을 접하기 힘든 후배들을 위해 마련하는 문화행사 'ArtTalk Concert'.
동천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2013년부터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문화공연 선배가 쏜다!' 네 번째 행사로, 동천고등학교 출신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동천고 동문 문화예술인모임' 주관으로 싱어송라이터이자 뮤지컬 제작, 연출가로 활동중인 가수 송시현과 부산을 대표하는 솔오페라단 상임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리톤 조현수, 부산 남구구립여성합창단, 김해YMCA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고영호, 동천고 동아리 밴드인 한가람 출신 동문들로 결성된 니나노밴드 등이 출연,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대중가요 등 후배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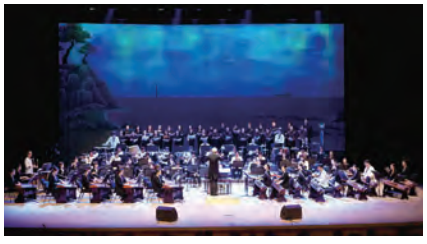
일 시 | 7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우리 귀에 친숙한 추억 속 세계 명곡을 흥겨운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6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세계음악 여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팬플루트, 아이리쉬휘슬, 반도네온, 오카리나 등 세계 민속악기와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세계민요, 영화 OST, 팝송 등 대중적인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세계명곡기행(편곡/김기범)/세레나데(슈베르트 곡), 재즈모음곡 제2번 '왈츠'(쇼스타코비치 곡), 유모레스크(드보르작 곡), 사랑의 인사(엘가 곡), 볼레로(라벨 곡), 아이테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모차르트 곡), 교향곡 제9번 '합창'(베토벤 곡) 팬플룻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외로운 양치기, 엘 콘도로 파사
아이리쉬휘슬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You Raise Me Up, 대니보이 등
트럼펫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박휘철)/밤하늘의 트럼펫, 아베마리아(슈베르트 곡), 나폴리 댄스(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오카리나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Whenever Whenever, La Bamba
반도네오니스트 진선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Una Por Cabeza(영화 '여인의 향기' OST), 리베르 탱고(피아졸라 곡)
최상화/사물놀이 협주곡 '태백의 춤'

- 지휘/이정필(수석지휘자)
- 협연/루이스 다비드 베루가치(팬플루트), 박혜리(아이리쉬휘슬), 박진선(반도네온), 박종근, 이석화, 김영선, 강상미, 고서란(오카리나)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객원출연/곽영일(드럼), 조형익(어쿠스틱 기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2016 여름마당 춤 축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

일 시 | 7월 21일(목)–22일(금) 오후 8:00
야외마당(※우천시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흥겨운 야외마당춤판을 통해 시민과 만나온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기획 2016 여름마당 춤 축제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
'드라마와 함께하는 춤 여행'은 영화, 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서정성, 신명을 담아낸 무대로,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남녀 2인무로 영원한 사랑을 그린 '사랑가'(판소리 '춘향가' 중)를 시작으로 한량무와 산조춤을 한 폭의 풍속화로 이미지한 '오나라'(드라마 '대장금' OST), 굿거리장단에 매우 흥겹고 구성진 경기민요 '창부타령',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 서러움, 그리움을 담아낸 '목포의 눈물(가요)',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가는 풍경을 그린 '천년의 사랑(가요)',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배와 갈매기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My heart will go on(영화 '타이타닉' OST)', 악기의 소리와 무용수의 몸짓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유희', 다양한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한 편의 뮤지컬을 보듯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웃게하소서(민요 '장타령', 영화 'The war' 아리랑, 가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인도 가요 'Tunak Tunak tun', 영화 '파리넬리' 중 '울게 하소서')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예술감독/김용철
- 훈련지도/서정숙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일 시 |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10, 11:1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극단 키즈샘&프렌즈 02–6203–6593

•••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 동화 '정글북'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율동으로 각색한 가족뮤지컬 '정글소년 모글리'.
이미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정글북'을 화려한 난타퍼포먼스와 특수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정글소년 모글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와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환상의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00, 3: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 2천원)
문 의 | 극단 해미소 1566–7623, 010–8718–7747

•••

지난 2014년 개봉해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처음으로 관람객 천만명을 돌파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겨울왕국'.
아렌델 왕국의 공주인 엘사와 안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마법을 지닌 언니 엘사는 동생인 안나와 주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왕국을 떠난다.
하나뿐인 언니와 얼어붙은 왕국을 구하기 위해 엘사를 찾아 떠난 안나는 과연 언니를 만나 얼음마법을 풀고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따뜻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화 속 같은 아름다운 무대와 'let it go' 등 원작 속에 등장하는 명곡들이 라이브로 펼쳐진다.

2016년 브니엘 무용예술제

일 시 | 7월 24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입장)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 070–581–8651
513–9710

•••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창작열정과 땀이 배어있는 2016 브니엘 무용발표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전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현대무용 'Navigate–길을 찾다'
한국무용 '나무의 시간'
발레 'Raymonda Act3(레이몬다)'
한국무용 '목검 검무'
현대무용 'One two punch(원 투 펀치)'
한국무용 '움'
발레 'Tarantella(타란텔라)'
한국무용 '삼고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일 시 | 7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

부산문화회관이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해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2016년 무대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지난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진 독일 지휘자 콘스탄틴 트링크스가 객원지휘하고 강렬한 연기와 압도적인 성량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과 오스트리아 린츠 극장의 주역가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명주, 베를린 Weiler Manegement 소속가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동현, 그리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한 무대에 선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3대 이탈리아 오페라인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코지 판 투테'와 독일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발췌한 하이라이트를 한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 해설/장일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5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2016년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뉴월드필하모닉 바이올린 수석 박진희, 서울예고 2학년 김태현의 색소폰 협연으로 그리고 '페르귄트' 모음곡 제1번 작품 46, 페드로 이투랄데 '페퀘냐 차르다',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들려준다.

• 지휘, 해설/금난새 • 색소폰/김태현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지휘자 이상렬과 함께 하는

2016 써머 판타지

일 시 | 7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8, 3142

5월 '가요합창음악회'와 더불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인 부산시립합창단 '2016 써머 판타지'.

매년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인 '써머 판타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무대를 선사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익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이상렬이 오랜만에 부산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준높은 전문 합창곡에서부터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외 가요, 팝음악을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있는 합창음악으로 편곡,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흙, 불을 만나다

도예명장 단아 박광천 41주년 작품전시회

일 시 | 7월 15일(금)-7월 19일(화) 중전시실
문 의 | 전원도예연구소 010-5234-0459

문화재 화공 164호 인도 이인호 선생을 사사하고 현재 여주시 도예명장으로 전원도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단아 박광천 도예전.

단아 박광천은 지난 1994년 제12회 한국예술대제전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1994년 제12회 신미술대전 대상 수상(국회상공위원장상), 1995년 제 12회 한국예술대제전 종합대상, 1995년 한국예술문화협회 작가상, 1995년 제13회 신미술창작대전 최우수상, 1996년 한국예술 문화상, 2001년 일본문화진흥회 국제도예연구대상, 2008년 제6회 뉴스매거진 제정 인물대상(민속예술대상), 2010년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표창장, 2012년 자랑스런 국민 대상 도예명장대상, 2013년 여주시 문화상, 2014년 제10회 뉴스매거진 제정 전통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16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7월 2일 경상도민요보존회 '경상도민요 재즈와 춤을 추다'

|프로그램|
울산 아이 어르는 소리-울산구 서생면(소리/구영선, 이새미, 최금옥, 조재희, 노희옥)
애기 재우는 소리-부산 기장(소리·연기/최윤영, 재즈피아노/하지림)
봄날은 간다(소리/최윤영, 춤/김정원, 재즈피아노/하지림, 콘트라베이스/강성민, 드럼/김진훈)
도화 널 그리며(소리/최윤영, 재즈피아노/하지림, 콘트라베이스/강성민, 드럼/김진훈)
큰 애기 반봇짐(소리/최윤영, 재즈피아노/하지림, 콘트라베이스/강성민, 드럼/김진훈)
처이총각 아리랑-부산 강서구(작사·곡/최윤영, 소리/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재즈피아노/하지림, 드럼/김진훈)
장구춤(춤/김정원) 등

7월 9일 부산버슴새예술단 공연

|프로그램|
비나리(선소리/최정민, 징/김한동, 장구/최의철, 북/이복남)
설장구(설장구/이현지, 박정원, 김선민, 전상호, 최정민, 최의철)
사물놀이(꽹과리/최정민, 김선민, 북/이복남, 류상봉, 장구/이현지, 최의철, 징/정은희, 김민재)
버나놀이(버나잽이/박정원, 류상봉, 악사/김선민, 전상호, 김민재, 정은희)
판굿(태평소/김미경, 상쇠/최정민, 징/김선민, 장구/이현지, 최의철, 북/이복남, 전상호, 열두발/김한동, 소고/박정원, 김민재)

7월 23일 스트로크타악기앙상블 연주회

|프로그램|
W.로젠캄프/아프리카 블루스
아더 리프너/라임주스
골로드 볼링/아일랜드 여인
허비 행콕/캔털루프 아일랜드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8번 다단조 작품 13 '비창' 후앙 티졸/카라반
• 비브라폰&마림바/김단비, 곽선영, 이일순
• 드럼/이성은 • 퍼커션/김영훈

7월 3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Open Strings' 연주회

|프로그램|
멘델스존/'한여름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비발디/'사계' 중 '여름'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중 'Raindrops Keep Fallin' on My Head'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중 'Under the Sea'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등
• 연주/바이올린 우소라, 바이올린Ⅱ 최은해, 비올라 홍영선, 첼로 서송은, 더블베이스 윤강희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6일 쿠바로 가는 길-세르반테스와 레쿠오나의 쿠바 피아노 음악

독일 라이프치히국립음대학, 석사과정, 미국 신시내티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Cincy-A 피아노트리오,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미현, 서울대학교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석사, 신시내티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보라, 서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음대 석사, 오리건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센토챔버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 중인 김은정과 함께 떠나는 쿠바 피아노 음악의 세계.
쿠바의 작곡가 이그나치오 세르반테스와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작품을 통해 쿠바의 라틴음악적 요소로 가득한 매력적인 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13일 맛있는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소프라노 장은녕, 강소영, 테너 곽성민, 베이스 박상진이 들려주는 오페라 '버섯피자' 갈라무대.
작곡자뿐만 아니라 첼리스트,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였던 세이무어 바랍이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한 오페라 '버섯피자'는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네 남녀의 유쾌한 사랑이 그린 블랙 코미디극이다.
• 피아노/박소미

20일 위드앙상블 '클래식 시간여행 with Romance'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부산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들이 학문적 교류를 통해 상호친목과 클래식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위드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4번 작품 52
벨리니/오페라 '카풀렛가와 몬테규가' 중 '오, 몇 번이었던가'
비제/사랑의 노래
도니제티/뱃사공
카르디로/무정한 마음 등 수곡
• 소프라노/김삼희, 한인숙
• 테너/최광현 • 바리톤/윤풍원
• 피아노/박정난, 서주옥, 조은주

27일 부산우드윈드소사이어티 제3회 정기연주회 'Wind Plus'

부산문화재단의 '2015년도 차세대 예술단체'로 선정되기도 한 부산우드윈드소사이어티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플루트와바순을 위한 브라질풍의 바하 제 6번
말콤 아놀드/플루트와 오보에, 클라리넷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자크 이베르/목관사중주를 위한 Deux Mouvements
앙드레 카플레/오중주
• 연주/김윤희(플루트), 유지훈(클라리넷), 박시연(오보에), 변지윤(바순), 진승민(피아노)

제2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일 시 | 7월 6일(수)-23일(토)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소공연장은 균일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모차르트 코믹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김유정 소설 '봄봄'과 전통연희 마당놀이 '아리랑 난장굿'의 만남 창작 오페라 '봄봄&아리랑 난장굿', 인간의 잔임함과 욕망을 강렬한 음악으로 표현한 '맥베스',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오페라 '리타', 아름다운 아리아와 친절한 해설, 모래그림이 함께하는 어린이용 샌드애니메이션 오페라 '마술피리', 도니제티의 대표적인 희극오페라 '사랑의 묘약' 등 총 6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6일(수)-8일(금) 오후 7:30, 9일(토) 오후 5:00
대공연장 아지무스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개막작]
• 예술총감독/손욱 • 지휘/정금련
• 연출/박용민
• 출연/이윤정, 양근화, 황윤정, 김아민, 이지영, 성미진, 김정현, 박보희, 임성규, 최광현, 김성배, 이광진, 박찬, 장진웅, 한정현, 신민원, 설은경, 이경실, 김달의, 조성빈, 이철훈, 최모세
• 피아노/하영화, 송지은, 김수희

8일(금) 오후 8:00, 9일(토) 오후 5:00 소공연장
부산오페라심포니오케스트라 '리타'
• 출연/소프라노 박현진, 김시하, 테너 김경민, 신대현, 바리톤 하병욱, 시영민
• 연출/차순례 • 예술감독/백진현

15일(금) 오후 8:00, 16일(토) 오후 6:00 대공연장
그랜드오페라단 '봄봄&아리랑 난장굿'
• 출연/소프라노 한경성, 테너 석승권, 바리톤 박정민, 민요 공미연, 전통연희단 꼭두쇠(쇠 김소민, 징 김남희, 장구 김동환, 북 성주호, 호적 박준구)
• 연출/안호원 • 예술감독/안지환

16일(토) 오후 2:00, 5:00 소공연장
뮤엔 샌드애니메이션 오페라 '마술피리'
• 출연/소프라노 이경미, 송애경, 테너 신인수, 바리톤 주장운
• 연출, 해설/조승환 • 샌드아티스트/드림

22일(금)-23일(토) 대공연장
부산로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맥베드'

23일(토) 오후 5:00
온누리오페라 '사랑의 묘약'
• 출연/소프라노 이지은, 김우영, 테너 황성학, 바리톤 고정현, 베이스 권영기
• 해설/이홍길
• 음악코치, 안주/안선애

김상진&양욱진의 톡톡콘서트

일 시 | 7월 7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욱진 010-2470-0847

•••

한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첼리스트 양욱진의 조인트 무대 '김상진&양욱진의 톡톡콘서트'.
'완벽한 테크닉과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인상적이며 호소력 있는 연주'라 호평받는 비올리스트 김상진은 그동안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방송진행자, 해설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비올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상진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귀와 가슴을 어루만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은 미국에서 활동하다 지난 2007년 귀국,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이상희, 박민선
• 바이올린/이리나

제2회 열정 넘치는 휴(休)음악회

일 시 |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봉수 010-4434-6605

부산 출신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각 대학교에 입학한 성악 전공 새내기들이 마련하는 '열정 넘치는 휴(休)음악회' 두 번째 무대.
음악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성악가들의 무대로, 학구적인 레퍼토리로 최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이예원(부산대학교), 김민정(경성대학교), 최단비(동아대학교), 정희정(경북대학교), 정민지(동아대학교)
- 테너/류신기(연세대학교), 손준호(동아대학교)
- 바리톤/고승현(계명대학교), 이건호(서울대학교), 김지석(부산대학교)
- 반주/김아영, 조은지, 신수현
-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정순
- 예술감독/바리톤 고봉수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스트라이어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지난 2009년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조우태, 비올리스트 김민경, 첼리스트 이강수, 베이시스트 박예송으로 창단한 스트라이어 앙상블은 기존 현악4중주에 더블베이스를 더해 한층 더 풍부한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 소속되어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 봉사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사중주 2번
스티비 원더/Isn't she lovely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엘가/사랑의인사 등

2016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피아니스트 조윤성

일 시 | 7월 12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클래식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와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7월 무대.
세계 더블베이스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민제는 현재 세계 유명 베이시스트들이 모인 국제 더블베이스 앙상블 '바시오나 아모로사' 리더도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허비 행콕의 눈에 띄어 멜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 멤버로 발탁된 조윤성은 미국을 거점으로 세계 재즈계 거목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실공히 이 시대 최고의 젊은 재즈뮤지션으로 꼽히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테마로 클래식과 탱고음악을 재즈버전으로 직접 편곡해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카를로스 가르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퀴케 시네시 '진실인가요', 피아졸라 '천사의 밀롱가', '신비한 푸가', '리베르 탱고', 히나스테라 '아르헨티나 춤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010-4568-3370

창원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 탁서연과 비올리스트 신지현, 첼리스트 김유미로 구성된 클레다 현악사중주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
클레다 현악사중주단은 'Classic never dies! 클래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자음과 화려한 조명에 지쳐 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앙상블로,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테마의 기획연주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찬조출연/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이일세

바이올린 듀오 '노보'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바이올린 듀오 노보 010-7499-6940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부속 영재음악학교와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김채원으로 구성된 바이올린 듀오 '노보'의 무대.
연세대학교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라이덴샤프트 앙상블 리더, 현대음악 앙상블 누벨바그 단원, MBC 솔로이스츠 음악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진승민과 노르웨이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Per Winge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Quatre Duettini'를 한국 초연으로 들려준다.

부산리코더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강희숙 010-2562-6561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꿈꾸는 부산리코더앙상블의 제9회 정기연주회.
리코더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 외국 유명 연주자들과의 꾸준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기량을 쌓아온 부산리코더앙상블은 매년 정통 바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해오고 있다.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현대곡, 재즈, 영화음악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아헨 마인츠 음대 Christian Seher 교수의 지휘로 부산주니어리코더앙상블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두번째 음악이야기

사랑을 그리다

일 시 | 7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김경미 010-6450-7591

피아노와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앙상블 음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테마로 대중들에게 실내악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경의 '음악이야기'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일러스트 작가 정재우와 함께 사랑이 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음악으로 그려내고 그림으로 노래한다.
현재 앙상블 음악연구회 공동대표, 월드엔젤피스 예술단, 뉴아시아오페라단 음악코치, 로이멘앙상블 리더로 활동하는 김미경은 전문반주자와 음악코치로 활동하며 앙상블 음악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 기획, 예술총감독/김경미
- 소프라노/박기연
- 일러스트/정재우
- 테너/조중혁
- 해금/황한나
- 작곡/나실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첼리스트 이명진과 몬티첼로 앙상블 'One Month Festival'

일 시 | 7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후 그동안 수준 높은 연주를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첼리스트 이명진과 몬티첼로 앙상블'.
세계적인 첼리스트 Natalia Gutman이 극찬한 첼리스트 이명진 동아대학교 교수와 심준호, 임재성, 이현지, 남정현, 송민제, 정수진, 배성우로 구성된 몬티첼로 앙상블이 우리 귀를 사로잡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알비노니/아다지오
몬테베르디/당신을 보고
비제/카르멘 환타지
피첸하겐/아베마리아
영화 '여인의 향기' OST 중 'Por una Cabeza' 등 수곡

제9회 with FRIENDS 여름음악회

일 시 | 7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강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자경 010-8907-1893

부산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무대경험과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두 차례 마련하는 with FRIENDS 여름음악회.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성악, 중창, 피아노,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준다.

- 출연/강금비, 강수진, 고가빈, 김태은, 박서연, 박서진, 유정연, 이상은, 정지유, 조수연, 조안나, 부산예술중학교 중창단, 부산예술중학교 어머니합창단

(사)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0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의 라 무지카 낭만의 음악여행

일 시 | 7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70-8899-7308

한 여름밤 낭만주의 음악의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겸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최영민의 협연으로 낭만주의 대표 오페라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과 노르웨이 국민음악의 기틀을 다진 작곡가 그리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제1번', 화려한 기교와 자유분방함 속에 서정적인 모습을 담아낸 그리그의 '페르귄트 조곡 제1번, 제2번'을 들려준다.
협연자인 최영민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해석하는 작, 편곡자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수아트홀 자선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강해진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콘서트

일 시 | 7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전액 자선금으로 사용)
문 의 | 수아트호744-1415

지난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 자선음악회.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수아트홀은 이번 무대에서 독일 오스나브뤼크극장 제1바이올리니스트, 울덴부르크극장 객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해진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콘서트를 통해 따뜻한 음악사랑을 펼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사장조 K.301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2
라벨/치간느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94

- 피아노/최영민

슈테른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7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슈테른앙상블 010-2186-7811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피바디음대 졸업 후 현재 중국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수석클리리네티스트로 활동 중인 문진성, 서울대학교, 미국 이스트먼음대,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바로크합주단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문주원, 연세대학교, 미국 피바디음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예원, 예고, 연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인 최영임으로 구성된 슈테른앙상블의 창단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마주르스키, 베토벤, 브람스 곡을 들려준다.

제4회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무료배부)
문 의 |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661-4831

•••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이 국내외 유명 음악가와 함께 젊은 음악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내외 관현악 전공자 100여 명을 선발해 마련하는 제4회 BNK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연주회.

- 예술총감독/오충근
- 지휘/이정생, 다니엘S김
- 연주/BNK뮤직캠프오케스트라(BMCO)
- 협연/최정윤교수(플루트), 정혜욱(소프라노)

Amico 창단연주회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엄진우 010-3884-1541

•••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와 작곡가들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단체 'Amico'의 창단연주회.
라틴어로 '친구'라는 뜻을 지닌 Amico는 지난 2014년 12월 '제1회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3차례 연주회와 2015년 2월 '봄의 길목에서 들여오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라는 피아노 협연무대를 기획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4번, 제7번
쇼팽/발라드 1번, 녹턴 20번
리스트/사랑의 꿈 제3번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등

- 피아노/예유림, 김희정, 하정은, 박자현, 최설주, 최다솔, 송호준
- 바이올린/신성호
- 클래식기타/고정현
- 작곡/이현정, 서예은, 엄진우

Play 연극

로맨틱 뮤지컬 '러브 어게인'

일 시 | 4월 20일(수)-7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수면제를 삼킨 한 여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 중간계에서 남녀 사신(死神)들을 만난다. 사신들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진 여자를 이승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지만, 사랑에 상처받은 그녀는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사신들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에게 사랑과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 삶 속에서 사랑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며 그녀를 살리려는 사신들과 죽기를 고집하는 여자의 티격태격 여행은 시작되는데….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진솔하면서도 소박한 사랑이야기 '러브 어게인'.

코믹연극 '코메디 레시피'

일 시 | 5월 5일(목)-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

자라온 환경, 살아가는 방식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자와 죽어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한 남자 간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은 휴먼 코미디극 '코메디 레시피'.
현대를 살아가는 청춘들 그리고 청춘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한 '나 홀로 서기'에 대해 다룬 '코미디 레시피'는 모든 것이 걱정투성이인 요즘 젊은이들의 일상, 꿈, 우정, 사랑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웃음이라는 레시피로 맛있게 버무려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극단 팻브릿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일 시 | 5월 13일(금)-7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팻브릿지 070-4279-3377

•••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극단 팻브릿지가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팻스티벌' 첫 번째 무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지난 2008년 초연 후 꾸준히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아니 생긴 여자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는 짠한 슬픔과 유쾌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토리와 라디오와 현실,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진행되는 빠른 극 전개, 상상력 넘치는 무대장치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김민우

연극 '몽타주'

일 시 | 5월 19일(목)-8월 28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영화를 뛰어넘 오감을 자극하는 연극 '몽타주'.
유년시절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사연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서서히 드러난다.
연극 '몽타주'는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인 이해조의 '쌍옥적(1908년)' 탄생과 한국추리 문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한 전격 추리연극으로, 2013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1,500여 회 공연, 전국 25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일 시 | 5월 20일(금)–7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난중일기의 찢겨진 페이지에서 착안해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미스터리를 기발한 발상의 코미디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영웅을 기다리며'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순신이 자신을 암살하려온 일본 무사에게 사로잡혀 3일간 동행하는 내용으로, 배고프면 서럽고 열 받으면 욕도 잘하는 인간적인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2008년 창작팩토리 최우수상, 2012년 창작뮤지컬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잠 못드는 이순신의 육두문자 화음이 만들어낸 기발한 뮤지컬 넘버와 한밤중 부르짖는 세레나데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18곡의 뮤지컬 넘버와 파워풀한 안무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가족체험극 '우당탕 과학탐험대'

일 시 | 5월 21일(토)–7월 31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평일 공연없음) AN아트홀.서면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자신이 만든 특수 로봇으로 지구정복에 나서려는 악당 과학자 '포크박사'는 마지막 실험에 몰두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이들의 친구 '팬'은 그의 연구실을 찾는다. 팬의 과학실력으로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포크박사에게 팬은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도전장을 내미는데, 과연 팬은 포크박사의 문제를 풀고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실험을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가족체험극 '우당탕 과학탐험대'.

연극 '보잉보잉'

일 시 | 6월 23일(목)–8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2010년, 2011년 골든티켓 어워드 연극부문을 수상하며 13년간 장기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믹연극의 대표작 '보잉보잉'.
어느날 주인공인 성기를 찾아온 친구 순성. 성기는 순성에게 자신이 세 명의 스튜디어스와 약혼했다고 털어놓는다. 성기는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에 맞춰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녀들이 서로 만날 일은 없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날 그녀들의 비행 스케줄이 꼬이면서 성기의 세 다리 로맨스도 꼬이기 시작하는데….
바람둥이 주인공 성기의 세 다리 코믹 해프닝을 그린 '보잉보잉'은 여인천하 사이에서 바람둥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성기와 순진한 사랑을 꿈꾸는 순성의 대조적인 모습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6월 23일(목)–9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9/15일 오후 6:00,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김수로와 SNL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민교의 발칙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화제의 로맨틱 코믹극 '발칙한 로맨스'.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지와 이별 후 봉필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공하고 결혼한 수지는 평범한 유부녀로 지내다 우연히 봉필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에 잠시 머무르게된 봉필이 수지에게 연락하면서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과연 두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발칙한 로맨스'는 10년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아슬아슬한 재회를 앙큼한 상상력과 포복절도한 대사로 그려낸 작품이다.

2016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일 시 | 6월 24일(금)–7월 9일(토)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전화예약시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cafe.naver.com/ggtheater/404

부산의 극단 어니언 킹을 비롯해 극단 놀자(대전), 극단 도모(춘천),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극단 한울림(대구), 극단 명태(전주), (사)문화창작집단 공터_다(구미),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안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극단들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관람을 위해 마련한 '2016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부산공연.

|일정

- 6월 24일(금) 오후 8:00, 25일(토) 오후 5:00
극단 어니언 킹 '초대–바다에게 말을 걸다'
- 7월 2일(토)–3일(일) 오후 5:00
극단 푸른연극마을 '안티고네'
- 7월 9일(토) 오후 3:00, 7:00
연극집단 반 초청 '집을 떠나며'

연극 '최면'

일 시 | 6월 24일(금)–9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9/15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지난 2014년 여름, 부산과 울산에서 성공적인 초연무대를 가진 후 지난해 서울 대학로에 진출하며 관객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던 연극 '최면'.
2016년 버전으로 다시한번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최면'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가 그녀를 얻고자 최면에 빠지게 되고, 11명의 희생자들을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인격을 그녀에게 주입하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최면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이코패스 공포스릴러극이다.
- 작, 연출/박정인

가마골소극장 30주년 기념공연

연극 '첫사랑이 돌아온다'

일 시 | 6월 28일(화)–7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전화예매시 30% 할인)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가마골소극장 개관 30주년을 맞아 극단 가마골이 마련하는 연극 '첫사랑이 돌아온다'.
지난 1986년 연희단거리패 창단과 함께 중구 광복동에 문을 열었던 가마골소극장은 2009년 거제동 지금의 한결아트홀 자리로 이전한 뒤 2013년 문을 닫았으나 오는 10월 기장 일광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연희단거리패 창단공연인 '푸가'의 원작자인 극작가 윤대성의 작품을, 연출가 이윤택이 재구성, 연출한 '첫사랑이 돌아온다'는 치매 환자가 모인 요양병원을 배경으로 삶의 황혼기에 사랑을 찾는 실버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원작/윤대성 • 재구성, 연출/이윤택

연극 '이프온리'

일 시 | 7월 1일(금)–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3일간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이프온리'.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의 일상이 한 순간에 바뀐다.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그때 나타난 점쟁이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 시간, 삼일 동안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낸 연극 '이프온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그(그녀), 보내고 남는 그녀(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

• 작/이민혁 • 연출/이규인

가마골소극장 30주년 기념공연

연극 '파출소 난입사건'

일 시 | 7월 6일(수)–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전화예매시 30% 할인)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오늘도 999 지구대에는 사연 많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이 방문한다. 술집 아가씨 같은 여검사, 연극표를 팔러 온 연극배우, 잃어버린 개를 찾아달라며 울부짖는 아가씨, 치매 걸린 어머니, 경찰 사칭녀, 그리고 쉴새없이 밀려드는 선량한 시민임을 외치는 주취자, 이들을 상대하다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어 버린 경찰들….
극작가 박현철의 작품을 배우 이승헌이 연출을 맡은 연극 '파출소 난입사건'은 사연 많은 우리 이웃들이 찾는 지구대를 배경으로 파출소 대원들의 좌충우돌 잔혹사를 그린 작품이다.

• 작/박현철 • 연출/이승헌
• 출연/홍민수, 안기관, 이창주, 이현준, 설창호, 이미영, 이나라, 이수강, 장태희, 손건우

극단 고춧가루부대 & 공연제작 소두둥

심청, 심봉사가 눈을 뜨니 세상이 가관이라

일 시 | 7월 7일(목)–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나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고춧가루부대 010–5060–2788

고전소설 '심청전'을 비틀어 보는 극단 고춧가루부대의 창작 전통극 '심청, 심봉사가 눈을 뜨니 세상이 가관이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심청의 효심이 아닌 그의 아버지 심학규의 부성애를 주제로, 용왕님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심청이를 찾아 길을 나서는 심봉사의 모험극인 이번 작품은 탈극, 그림자극, 인형극 등 우리 전통 소재에 민요, 정가, 판소리, 굿놀이 등을 차용하면서도 댄스, 힙합, 인디밴드 음악을 곁들이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 작/안준영 • 연출/박태환
• 출연/장해강, 박현아, 박재한, 박현아, 홍다은, 윤혜정, 김서휘, 옥유선, 정자현, 김도훈, 길연범, 백윤렬, 이강현, 한복현, 박기환 외

신나는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윙스'

일 시 | 7월 9일(토)–10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ES생활문화 070–8654–0377

EBS 인기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를 무대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신나는 가족뮤지컬.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 슈퍼윙스 친구들, 전세계 문화체험을 하며 함께 공연할 어린이 친구들을 모집하고 천신만고 끝에 모두가 브로드웨이에 도착했는데 무대의상과 소품 챙기는 걸 깜빡하고 만 친구들, 과연 이들은 브로드웨이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택배 비행기 '호기', 귀엽고 당찬 구급 헬리콥터 '아리', 만들기의 달인 '도니', 묘기 비행기 '재롬' 등 애니메이션 속 비행기 캐릭터가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슈퍼윙스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와 춤을 즐기며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다.

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7월 15일(금)–8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홀로 오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병들어 눈을 감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업동이를 오남매에게 부탁한다. 맏딸 진실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가장의 의무를 다한다. 꿈이 없는 둘째 야동이, 착한 셋째 갑동이,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착한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업동이….
육남매의 바람 잘 날 없는 분주한 일상이 걸쭉한 부산 사투리 속에 펼쳐지는 '검정고무신'은 어렵지만 정이 있었고 나눔과 사랑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추억 속으로 관객들을 빠져들게 한다.

뮤지컬 '복순이할배'

일 시 | 7월 22일(금)–9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주인공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복지학과에 재학중이던 태수는 어느날 괴짜 독거노인 할아버지 집에 실습을 나가게 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복순이할배'는 탄탄한 연출력과 연기력, 귀까지 즐겁게 해주는 주옥같은 OST가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 작사, 작곡/박정우

20주년 'ILLUSIONIST 이은결' – 부산

일 시 | 7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31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문 의 | ㈜WSM 1566–5490

정형화된 마술쇼를 벗어나 그만의 특별한 '매직콘서트'를 만들어온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20주년 기념무대.
그동안 총 800회 이상의 공연, 누적관객 8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공연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온 이은결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20년 마술인생의 노하우가 담긴,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퍼포먼스와 대규모 특화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10년 주기마다 특별히 제작되는 프로젝트인 'ILLUSIONIST 이은결' 무대로 마술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 일상 생활에서 가능한 마술에서부터 쉽게 만나 볼 수 없는 이은결만의 고품격 스펙타클한 마술까지 총 망라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Dance 무용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일 시 | 5월 13일(금)–12월 25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월–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그랜드호텔 전용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2016년 무대.
궁중의 화려함과 영남의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왕비의 잔치'는 올해 국립무용단 예술총감독을 맡은 바 있는 국수호 명무의 안무로 궁중정재를 비롯 동래학춤, 동래고무, 고성오광대, 북의 대합주 등 지역민속무용과 국수호 안무가의 창작춤, 판소리 '음식가'가 추가되는 등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발레컬 운수 좋은 날

일 시 | 7월 12일(화)–15일(금) 오후 2:30,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김옥련발레단 626–9486

1920년대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되는 현진건 소설 '운수좋은 날'을 창작발레로 무대에 올린 김옥련발레단 발레컬 '운수좋은 날'.
'영혼의 동반자', '별', '날개', '운현궁의 봄'에 이은 문학과 발레와의 만남으로, 2012년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공연예술 창작기금 사후지원사업 선정작,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 레퍼토리공연으로 선정되면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원작/현진건
- 안무/김옥련
- 연출/최병규
- 음악감독/전현미
- 출연/김륜호, 박영진, 허종원, 허성준, 신선경, 오상민, 서정애, 강정윤, 최여경, 김옥련
- 현미밴드/전현미, 백상호, 엄준필, 전자연, 이창환

Event 행사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야기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출발한 화요해설음악회 '좋은음악 & 좋은만남' 7월 강좌.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 하는 만남의 장이다.

|프로그램|
5일 붉은돼지
12일 천공의 성 라퓨타
19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6일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문음악회]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18)
아리랑–우리의 노래, 세계의 노래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후 4:30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정욱 010–3853–6634

|프로그램|
1부/영화 아리랑(1926년 작) 소개, 동영상(20분)
2부/아리랑 음악감상 및 해설(동·서양의 음악이 만나고, 장르가 만난다)

- 기획 및 해설/최정욱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일 시 | 7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이탈리아의 바로크 음악'라는 주제로 바로크 시대 후반기를 탐구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오페라의 도시 나폴리의 스카를라티, 기악음악의 중심지가 되었던 로마의 제미니아니와 로카텔리,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활력이 넘쳤던 페스티벌의 도시 베네치아의 비발디를 만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3강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 시 |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세 번째 강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강좌를 이끄는 강사 김성민은 국내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2006년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지 미술관 도슨트로도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로, 지난 10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현재는 본인의 전문분야인 음악과 미술, 그리고 여행을 주제로 예술융합강연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앞서 두 차례 있었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에 이어 인류 보편의 천재라고 일컫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본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술의전당과 함께 하는 스크린콘서트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일 시 | 7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전화 예약 필수)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우수공연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실황 영상은 물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얘기를 담아낼 스크린 콘서트 7월 상영회에서는 임헌정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임헌정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연주실황을 상영한다.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는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대도시의 활기에 감동을 받아 미국의 민요정서를 곁들여 작곡한 곡으로 교향악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Display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영상과 울림-1970년대 일본의 판화'

일 시 | 4월 19일(화)-7월 1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위대한 일상'

일 시 | 5월 4일(수)-7월 1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양석대 초대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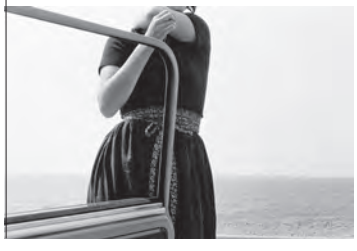
일 시 | 6월 16일(목)-8월 14일(일)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정준호갤러리 943-1004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일 시 | 5월 14일(토)-8월 1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고은미술사진관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죄 드 폼 국립미술관과 함께 기획한 '브뤼노 레끼야르, 형태의 시'.
국내에는 비교적 생소한 프랑스 사진작가 브뤼노 레끼야르는 프랑스 사진의 전통을 잇는 작가로 형태가 강조되고 초현실적 분위기가 내재돼있어 독특한 사진풍을 자아낸다.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브뤼노 레끼야르의 1967년-1979년 사이의 초기 작업과 2000년대 이후의 컬러사진을 포함한 파노라마 작업 등 그의 대표작 89점을 감상할 수 있다.



Artworks with a Story - 이야기가 있는 그림

찰스 파지노, 이서미 2人展

일 시 | 6월 17일(금)-7월 16일(토)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공통적으로 회화를 베이스로 하지만 3D 팝업(Pop-up) 형태의 입체적인 조형방식을 접합하여 일반적인 회화보다 적극적으로 감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찰스 파지노, 이서미 2인전.
다채로운 색감과 입체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위트와 잔잔한 위로를 전해줄 이번 전시에는 두 작가의 스토리가 담긴 작품 35여 점이 전시된다.

8085 드로잉전

일 시 | 6월 28일(화)-7월 3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타워아트갤러리기획 '한국의 멋-부채그림전'

일 시 | 7월 1일(금)-7월 18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기획 2016 '여름-樂'展

일 시 | 7월 19일(화)-7월 30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RECORD

레너드 번스타인 'Larger Than Life'

▶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음악에 대한 만화경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번스타인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고 왜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자녀들인 제이미, 알렉산더, 니나 등의 인터뷰와 스테판 온드하임, 피터 존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노먼 레브레히트 등 음악계 인사들의 인터뷰가 번스타인의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특히 지휘자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 진행가, 여기에 대중의 흥미를 잡아채는 탁월한 스타적인 기질까지 번스타인의 음악적, 그리고 음악외적 재능까지를 모두 일별하는 놀라운 다큐멘터리이다. 게오르그 뷔블로트 감독의 편집에 의해 번스타인의 음악과 삶이 재조명되는 이 블루레이에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켄트 나가노, 마린 알솝과 같은 현대 지휘자들의 보너스 인터뷰까지 수록되어 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 · 다니엘 바렌보임,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 아르헨티나를 빛낸 두 거성의 콜라보레이션

지난 2014년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역사적인 극장 테아트로 콜롱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가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이 공연의 주역은 아르헨티나가 낳은 두 명의 거장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다니엘 바렌보임. 바렌보임이 창설한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콘서트가 DVD1에, 그리고 바렌보임과 아르헤리치가 피아노 듀오를 연주한 콘서트가 DVD2에 수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어쿠스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콜롱 극장을 일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영상물만의 장점.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아르헤리치 협연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라벨과 비제의 관현악곡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아노 듀오 공연은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스트라빈스키, 슈만, 라흐마니노프, 미요와 구스타비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파콘체르트 시리즈 25주년 기념 박스 (Anniversary BOX 1991 – 2015)

▶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생생한 역사이자 유럽 도시들의 현재진행형을 담은 기념비적인 예술품

매년 5월 1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저 유명한 유로파콘체르트(유럽 투어 콘서트)를 갖는다. 해마다 유럽의 각기 다른 도시에서 연주회를 갖는 이 유로파콘체르트는 오케스트라의 창단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유산을 공유한다는 취지 하에 진행되고 있다. 첫 공연은 1991년 5월 1일 시작되었고 유로아츠가 그 충실한 단독 파트너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연주회 실황들을 영상물로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개의 연주회가 촬영되었는데, 이번 그 모든 연주회 실황들을 하나로 묶어 박스로 발매했다.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지휘자들을 보면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비롯해 다니엘 바렌보임,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등이 등장하고, 솔리스트로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트루스 뫼르크, 플라시도 도밍고, 리사 바티아쉬빌리 등이 출연한다. 그 외 연주회가 열리는 해당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보너스 영상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BOOK

오래된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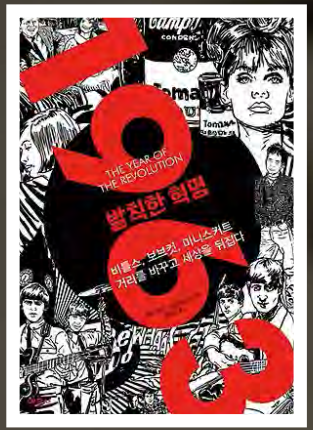
김치호 지음 / 아트북스 / 360p / 3만원

고미술에 매혹된 경제학자 김치호 숭실대 교수가 한국의 아름다움과 컬렉션을 이야기하는 책을 펴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 고미술에 매료된 후, 저자는 25년 넘게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탐구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데 열정을 쏟아왔다. 이 책은 그의 오랜 화두인 '우리 고미술의 아름다움'을 찾아 헤맨 여정에서 얻은 사유와 체험의 기록이다. 책의 전반부는 '고미술 컬렉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자 해석이다. 고미술이란 무엇이며 고미술 컬렉션은 어떠한 속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미의 원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 후반부는 고미술 컬렉션의 실전 편이다. 고미술 컬렉션 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보고, 현장을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을 소개한다. 고미술품은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유한의 존재이고 또한 고가(高價)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컬렉션의 세계에서는 고미술품 역시 사고파는 물건이고 그 시장에도 보편적인 경제논리가 통용된다. 경제학자이자 고미술 컬렉터인 저자의 시선으로 본 우리 컬렉션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인 고미술시장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다.

돈황학대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공역 / 소명출판 / 1,978p / 22만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두 기관의 HK(인문한국)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번역한 〈돈황학대사전〉 한국어판이 출간되었다. 돈황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불교예술의 보고이다.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면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탄생했을까. 돈황학은 국외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종교·예술·역사·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구의 역사만 해도 이미 100년을 넘고 있다. 〈돈황학대사전〉은 중국·대만·러시아의 돈황학 연구자 120명이 13년에 걸쳐 자료 수집과 집필을 마치고 지난 1998년에 출판한 돈황학 연구 성과의 집대성이다.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 사전의 번역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2012년 공동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총 22명의 역자와 10명의 감수자가 참여한 끝에 4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돈황을 비롯한 실크로드 핵심 도시들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의 불교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시기 한국의 불교문화와 의례 등을 돌아보고 나아가 현재 한국 불교문화와의 연관성까지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63 발칙한 혁명

로빈모건, 아리엘리브 지음 · 김경주 옮김 / 예문사 / 456p / 1만 9천 800원

1963년을 세계 대중문화의 혁명이 시작된 해라고 말하는 책이 나왔다. 1963년 젊은이들은 자유와 열정을 발산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당시 젊은이들은 피임약의 보급과 전쟁의 종식으로 임신과 징병의 불안에서 벗어나자 과감하게 거리로 뛰쳐나와 구세대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구세대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꿈'과 '새로운 욕망'을 실현하고자 대중문화 진영에 몸을 던졌다. 이 책에는 1963년의 혁명을 직접 일으켰던 문화계 주역 48인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그들은 당시의 개인과 사회, 국제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증언한다. 미니스커트로도 모자라 맨다리로 거리를 활보해 부모 세대를 놀라게 한 메리 퀀트와 바버라 훌라니키, 홀로코스트를 다룬 중요한 영화였지만 여성의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검열에 부딪혔던 영화 〈전당포〉의 출연 배우 린다 가이저, 1963년 1월에 영국 공영방송에 같은 날 데뷔한 비틀스와 밥 딜런 등.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음악의 파급력이 어느 때보다 컸던 밴드들 외에도 출판, 영화, 언론, 패션, 미술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던 변화를 총 4장으로 나눠서 골고루 들려준다. 1963년의 혁명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NEW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7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 **연주회 일시** : 2016년 9월 7일(수) 19:30

■ **모집 개요**

응시자격 : 원서접수 시 초 · 중 · 고 · 대학교(인제대 포함) 등
부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단, 2013년 (제6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모집부문 : 피아노, 현 · 관 · 타악기(협주 가능한 악기)

모집인원 : 부문에 관계없이 5~8명

■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6년 7월 6일(수) ~ 7월 13일(수) 10:00~17:00

장 소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공연운영팀 교향악단 담당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전형 개요**

전형일시 : 2016년 7월 15일(금) 10:00~18:00

※ 세부일정 7월 14일(목)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전형과목 : 협주곡 단악장
(자유곡 / 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 **기 타**

합격자 발표 : 2016년 7월 19일(화)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
(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 참관 가능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공연운영팀
교향악단 담당 607-3145

제15기 여름연극교실

■ **강습기간** : 2016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5일간) 10:00~15:00

■ **강습장소** : 부산시립극단 연습실, 소극장

■ **강습내용 및 강사**
- 강습내용 : 연극개론 및 작품체험
- 강　　사 : 이혁우(수석단원) 외 5인
- 수료증 발급 : 강습기간 전 교육일정 참가자

■ **교육일정**

	7월 25일(월)	7월 26일(화)	7월 27일(수)	7월 28일(목)	7월 29일(금)
10:00~12:00	극단 소개 및 인사 연극학 개론	작품분석	장면연습	장면연습	리허설(소극장)
점심시간 : 12:00 ~ 13:00					
13:00~15:00	작품선정	대본리딩	장면연습	장면연습	수료식 및 강습결과 발표회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6년 7월 4일(월) ~ 7월 21일(목)(18일간, 주말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hwanilv@hanmail.net), FAX(607-3149) 접수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에서 교부
- 대상 /인원 :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인 / 선착순 20명
- 수 강 료 : 2만원(교재 포함)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 부산시립극단 607-3147

2016년 하반기 어린이&시민무용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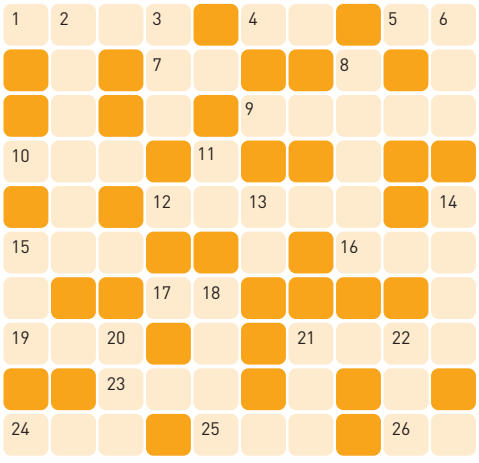
■ **강습기간** : 2016년 7월 25일(월) ~ 7월 29일(금)(5일간)

■ **강습장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6년 7월 4일(월) ~ 7월 7일(목)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fillide@hanmail.net), FAX(607-3149) 접수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에서 교부
- 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20명(어린이무용교실), 일반인 30명(시민무용교실)
- 수 강 료 : 어린이무용교실 1만원, 시민무용교실 2만원 ※ 강습내용 및 강사는 추후 공지

■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5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051-611-8518	큰집	051-245-3320
조은극장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080-337-337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yellOin 옐로인 플라워

가로열쇠

① 부산문화회관이 7월 25일 오페라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베이스 바리톤. 3년 연속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와 압도적인 성량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아왔다.

④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지휘자로 유명했으나 사후에는 중요한 후기 낭만파 작곡가로 평가받았다. 특히 그의 아홉 개의 교향곡과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대지의 노래' 등이 유명하며 7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그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이 연주된다.

⑤ 예로부터 3월 3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9월 9일 등 월과 일이 겹치는 날은 양기가 가득찬 길일로 쳐왔는데, 그 가운데 5월 5일을 가장 양기가 센 날이라고 해서 으뜸 명절로 지내왔다. 수릿날(水瀨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수리란 말은 고(高)·상·신(神)을 의미하는 옛말로, 이날은 1년 중 최고의 날이란 뜻도 된다.

⑦ 어린이아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문학 장르의 하나 또는 거기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

⑨ 예술가, 전문가에 대한 경칭 또는 칭호. 특히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의 지휘자, 음악감독, 작곡가, 스승의 경칭으로서 사용된다.

⑩ 그리스 신화의 하몰리토스, 테세우스, 파이드라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줄스 다신 감독의 1962년 작 영화. 제목인 ○○○는 파이드라의 영어식 표기.

⑫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대사와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주제곡으로 지금까지 대표적인 로맨스영화로 사랑받고 있는 라이언 오닐, 알리 맥그로우 주연의 영화.

⑮ 1926년 한국영화사상 가장 초창기에 제작된 나운규 감독의 데뷔작. 항일민족정신을 주제로 한 영화로, 영화의 제목이자 주제가였던 민요 ○○○은 이후 암담한 시대를 사는 온 겨레의 애국가로 전해지게 되었다.

⑯ 수에즈 운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이집트 국왕의 의뢰를 받아 작곡된 베르디 오페라.

⑰ 12종류 48장으로 되어 있는 놀이딱지의 일종으로, 일본의 카드놀이인 하나후다(花札)가 조선 시대 후기(19세기경) 한반도로 전해져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⑲ 주인공역을 맡은 영화배우 강수연이 1987년 제44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해외에 본격적으로 한국영화의 존재를 알린 임권택 감독의 영화.

㉑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㉓ 조선 말기를 풍미했던 추사 김정희의 문인화 이념의 최고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 국보 제180호.

㉔ 크고 평평한 바위를 몇 개의 바위로 괴어 놓은 고대의 거석 구조물. 지석묘.

㉕ 두 개의 U자 모양의 관을 서로 끼워 맞추어서 만들어져, 컵 모양의 마우스 피스에 입술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 음의 조절은 슬라이드로 하며 트럼펫보다 낮은 음역을 담당한다.

㉖ 외부의 사람이나 단체를 초빙하기 위해 연락하여 의논함.

세로열쇠

②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전설의 복서로, 지난 6월 3일 7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③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인.

⑥ 인간에게 내재된 악과 사랑, 질투를 선명하게 묘사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

⑧ 유럽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빈(비엔나).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세 시대부터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들이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다.

⑪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⑬ 미국 대공황기를 배경으로, 할리우드 최고의 남자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와 폴 뉴먼이 주인공을 맡은 범죄 코미디 영화.

⑭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백년전쟁에 참전하여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19세의 나이에 반역과 이단의 혐의를 받아 화형에 처해진 프랑스 애국주의의 상징.

⑮ 올해 제6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전 세계 176개국에 판매되며 한국영화 역대 최고 국가 판매 기록을 갱신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

⑱ 작곡가 푸치니가 카를로 고치의 동명 희극에 감명을 받아 작곡을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서 마지막 막을 푸치니의 밀라노 음악원 동기후배이자 토리노 음악원장인 프랑코 알파노가 토스카니니에 의뢰를 받아 완성한 3막 오페라.

⑳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으로 화제를 모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㉑ 포르투갈 수도.

㉒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국민 화가. 그가 머물며 작품활동을 펼쳤던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미술관이, 그리고 범일동에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지난호 정답

백	건	우	■	프	라	하	■	카	■
조	■	화	성	■	디	■	장	사	익
의	■	■	■	손	오	공	■	노	■
호	스	피	스	■	스	■	아	바	■
수	■	노	■	마	타	하	리	■	헨
■	돈	키	호	테	■	■	아	■	젤
노	■	오	■	호	치	민	■	■	과
르	■	■	베	른	■	■	그	리	그
마	스	카	니	■	세	■	리	■	레
■	키	■	스	티	븐	잡	스	■	텔

6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희정(수영구 광남로)
박정희(동래구 우장춘로)
이윤호(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정민영(해운대구 선수촌로)
최정욱(남구 진남로)

큰집 식사권
김성진(서구 대영로)
김주은(사하구 사리로)
법정스님(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송재은(동래구 충렬대로)
이지영(서구 보수대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박원방(강서구 신항남로)
형정민(동래구 충렬대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동현(동구 충장대로)
송진규(동래구 동래로)
윤희정(해운대구 청사포로)
최희진(금정구 금단로)
하봉미(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교실 밖에서 배우는 신나는 문화예술체험
2016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쿵더쿵 국악교실, 별난 음악교실, 어린이 오페라교실

흥겨운 굿거리 장단 익히기, 내가 만들어 보는 동요,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는 노래,
레코딩 작업, 재미있는 오페라 감상과 분장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감성이 쑥쑥~

■ 쿵더쿵 국악교실

국악감상에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국악장단을 이해하고 직접 자신만의 선율, 가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국악 작곡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6. 7. 25(월) ~ 7. 29(금) 오전 10시~12시
- 강 사 : 백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별난 음악교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재미있는 작곡교실로 초등학생들과 친숙한 동요를 통해 기초 작곡이론, 동요 작곡 방법 등을 직접 배우고 불러 보는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6. 8. 8(월) ~ 8. 12(금) 오전 10시~12시
- 강 사 :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어린이 오페라교실

클래식은 내 친구에 이은 부산문화회관의 어린이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오페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오페라 감상, 오페라 직접 불러보기, 분장체험 등 진행

- 운영기간 : 2016. 8. 22(월) ~ 8. 26(금) / 5일간
- 강 사 : 이연기(영산대학교 교수)

■ 공통사항

- 접수기간 : 2016. 7. 4(월) ~ 7. 20(수)
- 모집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모집인원 : 20명(어린이 오페라 교실은 30명)
- 수 강 료 : 균일 2만원
-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310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회 비	할인매수
골드회원	50,000원	4매
블루회원	30,000원	2매
그린회원	20,000원	1매

* 단체가입 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회원가입

- 가입신청 : 전화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부산문화회관)
    ※ 홈페이지 가입 : 인터넷(무료)회원 등록 후 마이페이지에서 정기회원 전환 유료결제
- 방문신청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예술단사무국 홍보팀

관람권 예매

- 예매 : 전화(607-3100)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 : 정기회원 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표소 제시)

회원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증 발급 우송(7일)
- 골드회원 초대권 2매 증정
  -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예술단 5개단체(정기·특별연주회) 중 선택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정보 제공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문화대학, 시민예능교실, 예술·예능아카데미 등)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할인쿠폰 발행

- 공간소극장,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필하모니, 모차르트, 송림정, 카페 빈센트, JUWA Coffe, Gallery&Cafe 가우디, 메가박스(서면점), 엘로인플라워(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대연혁신점), 안경나라(동래점),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새날한의원, 굿윌치과병원, 웰니스병원, 엘리움여성병원, 세흥병원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6:00까지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회원(유료) 가입 5일 이후 취소 불가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홍보팀 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핸드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a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GauDi 2015 Gallery & Caf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꽃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HARBOR HOTEL BUSAN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윌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00(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WELLNESS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고전음악의 재발견

2016. 7. 6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이베르 | 실내악을 위한 디베르티스망
마르첼로 | 오보에 협주곡 라단조
비탈리 | 샤콘느 사단조
레스피기 | 「새」 모음곡

지휘 이 동 신

오보에 조 정 현

바이올린 임 병 원

주최 / 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권 균일 2,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할인이벤트 3+1가족이벤트(티켓 3매를 구입 시 1매 무료)
문의 607-3101(홍보팀) / 607-3148(공연운영팀)

부산시립무용단 제 74회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예술감독, 안무 _ 김용철
Artistic Director _ Kim Yong-Chul
業鏡臺
A Man's Requiem
업경대
2016. 7. 14(목)-1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 입장료 균일 10,000원 | 문의 607-3107 | 예매처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www.facebook.com/부산시립무용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부산시민 문화나눔

웅산의 FUN FUN FUN JAZZ

WOONG SAN

2016. 8. 11.(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후원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문의 051-607-606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를 빛낸 부산출신 피아니스트
콘체르토 페스티벌
Concerto Festival

4인의 피아니스트가 화려하게 펼치는
라벨, 베토벤,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등
명품 피아노협주곡의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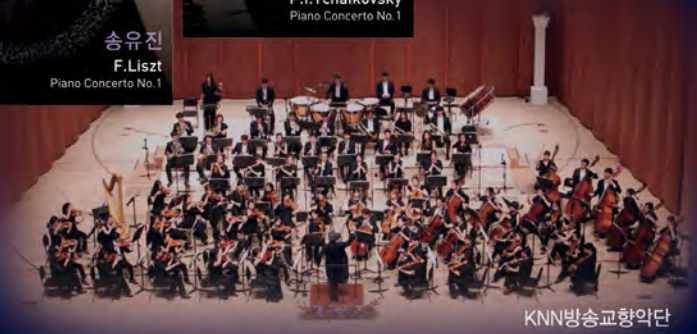
황성훈
M.Ravel
Piano Concerto in G Major

탁영아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5 "Emperor"

송유진
F.Liszt
Piano Concerto No.1

김다솔
P.I.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지휘 이병욱


KNN방송교향악단

2016. 8. 17수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공연문의. 051) 607-6065

티켓. VIP석 5만원 / R석 4만원 / S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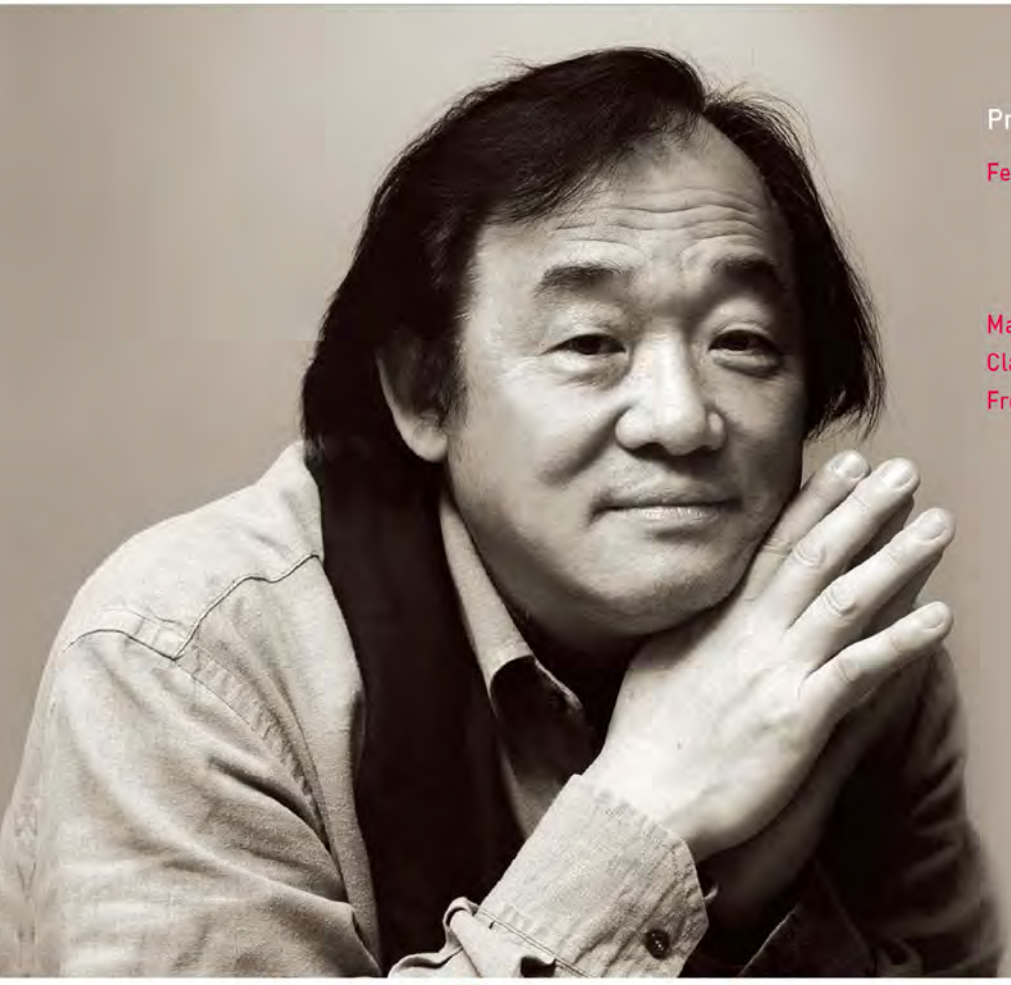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UN WOO PAIK PIANO RECITAL

부조니 탄생 150주년 기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6. 7. 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Ferruccio Busoni	Elegy BV249 No.2
	Fantasia nach J.S.Bach
	Elegy BV249 No.4
	Sonatina No.6
Maurice Ravel	Sonatine
Claude Achille Debussy	Préludes Book 1 No.3, 6, 7
Frédéric Francois Chopin	Scherzo No.1&No.2

주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前衛 Jeon We Performing Arts 공연문의.051) 607-6065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 V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

Sop.이명주

Ten.김동원

해설 장일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Bass 사무엘 윤

콘스탄틴 트링크스

2016. 7. 25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 티켓:R석 2만원, S석 1만원 • 예매:culture.busan.go.kr • 문의: 607-6042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HWASEUNG

화승그룹

〔국내〕**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액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I)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